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한·중 최초 여성기자의 여성관 고찰:

이각경과 강동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이 자

2023년 8월



# 한·중 최초 여성기자의 여성관 고찰: 이각경과 강동위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언론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이 자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지도교수 최낙진

이자의 언론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증함

2023년 6월

심사위원장 \_\_\_\_\_ 이서현 \_\_\_\_\_ (인)

위 원 \_\_\_\_\_ 조박 \_\_\_\_\_ (인)

위 원 \_\_\_\_\_ 최낙진 \_\_\_\_\_ (인)

A Study on the View of Women by the First  
Female Journalists in Korea and China:  
Centering on Lee Gak-kyung and Kang-Tongwei

Yi Zi

(Supervised by professor Nak-Jin Cho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2023.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
II. 이론적 배경 .....	4
1. 한국과 중국 근대 사회의 여성관 .....	4
1) 한국 근대 사회의 여성관 .....	4
2) 중국 근대 사회의 여성관 .....	7
3) 여성관에 관한 선행연구 .....	9
2. 한국과 중국 최초 여성기자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11
1) 한국 최초 여성기자 이각경에 대한 선행연구 .....	11
2) 중국 최초 여성기자 강동위에 대한 선행연구 .....	15
3. 한국과 중국 최초 여성기자가 활동한 신문 .....	19
1) 이각경이 활동한 <매일신보(每日申報)> .....	19
2) 강동위가 활동한 <지신보(知新報)> .....	21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23
1. 연구문제 .....	23
2. 연구방법 .....	23

1) 분석대상 .....	23
2) 연구방법 .....	26
<b>IV. 연구결과 .....</b>	<b>27</b>
1. 한국 최초 여성기자 이각경의 여성관 .....	27
2. 중국 최초 여성기자 강동위의 여성관 .....	38
3. 한·중 최초 여성기자 이각경과 강동위의 여성관 비교 .....	41
<b>V. 결론 및 논의 .....</b>	<b>46</b>
1. 연구결과 요약 .....	46
2. 연구의 의의 .....	47
3. 한계 및 제언 .....	47
<b>참고문헌 .....</b>	<b>49</b>
<b>Abstract .....</b>	<b>52</b>
<b>부록 .....</b>	<b>55</b>

# 표 목 차

<표 1> 분석대상 ..... 25

## 국문초록

19세기 말 중국과 20세기 초 한국에서는 각각 사상 최초의 여성기자가 등장했다. 한국 최초의 여성기자 이각경은 1921년 <매일신보(每日申報)>에서 활동했으며, 총 40여개의 기사를 작성했다. 이각경(李珪瑾)은 아동교육, 여성교육, 고부관계, 관습 등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선진적이면서 계몽적인 여성관을 제시했다. 강동위(康同薇)는 중국 최초의 여성기자로 선진 여성 지식인과 함께 <여학보(女学报)>를 창간했으며, <지신보(知新報)>에서 일본어 번역과 기고를 맡았다. 그녀는 ‘중국의 쇠락은 사기부진 때문임을 논함(论中国之衰由于士气不振)’과 ‘여학이폐설(女学利弊说)’ 등 2개의 기사를 발표했다. 이 기사를 통해 강동위는 당시 중국의 전통적인 봉건적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외국 사례를 소개하며 여성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여학교가 전국에 널리 퍼지도록 하라”는 선진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두 여성기자의 언론활동에서 나타난 여성관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최초 여성기자인 이각경과 강동위의 여성역할관, 여성교육관, 남녀평등관, 사회문화관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한국과 중국의 최초 여성기자인 이각경과 강동위의 여성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형성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이각경은 여성역할관은 가정역할관과 사회역할관 등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가정역할관에서는 부업에 대한 인식 개선, 하인에 대한 조선 부인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역할관에서는 사상의 개량, 사회예절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각경의 여성교육관에서는 아동교육, 가정교육을 중심으로 한 가정 내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녀평등관을 통해 여성이 남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특히 가정에서 남성이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관에서는 종교와 조혼, 결혼 풍습 등에 대한 악습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동위의 여성역할관은 먼저 가정역할관에서는 아동 교육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 사회역할관에서는 교육자로서 여성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또한 여성교육관에서는

외국 사례를 소개하며 여성이 교육을 받아야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녀평등관에서는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남성과 여성이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관에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각경와 강동위의 언론활동에는 계몽적인 여성관이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두 여성 기자는 여성의 봉건사상을 새로운 사상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고, 교육을 받는 것이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두 여성기자는 언론활동을 통해 여성교육과 아동교육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교육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언론활동에는 시각 차이 또한 드러났는데, 이각경은 가족과 개인에 주목한 여성관을, 강동위는 사회와 국가에 주목한 여성관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최초 여성기자들의 언론활동 분석을 통해 당시의 봉건적이고 낙후된 사회 환경 속에서 이들이 어떤 여성관을 강조했는지 파악하고, 이와 함께 이들이 계몽적 여성관을 갖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간 한국과 중국의 최초 여성기자들의 여성관을 비교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향후 여성관 연구를 확장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본다.

주제어: 여성기자, 매일신보, 지신보, 여성관, 남녀평등관, 사회문화관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인간 사회의 구성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동일하다. 남성과 여성의 공동 노동은 사회의 진보를 촉진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는 중시되지 않았고 봉건사회의 여성은 전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된 산물이다. 근대사회에서 여성들은 저항할 수 없는 남성의 힘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오늘날까지도 여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많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인류 사회와 문명의 진보와 발전에 동일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남녀의 지위는 평등해야 하며 남녀 지위의 불평등은 '사회 기형의 병적 상태, 인류 문명의 결함'이다(翟大昌, 1932).

한국과 중국은 근대사회에서 전쟁의 불길에 시달려 왔으며, 그동안 지식인들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외국의 신진지식을 폭넓게 받아들였고, 당시 양국의 특수한 환경과 결합하여 새로운 사상문화가 양국에서 탄생했다. 한국과 중국의 여성들의 해방은 매스미디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매스미디어는 주로 서적,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말한다(金冠軍, 2007). 언론매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문이다. 신문은 시대성과 실효성을 가지고 있고 신문은 시대성이 강하고 정보의 양은 많다. 전자매체가 등장하기 전인 근대사회에서 신문에 글을 읽고 발표하는 것이 당시 한국과 중국 여성들이 자기 생각을 흡수하고 발표하는 주요 방식이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오랜 언론 역사 속에서 남성은 절대적인 주도적 지위를 차지해 왔던 반면, 여성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과 중국은 사회변혁의 대시대에 처해 있었고, 서구의 선진사상은 동양의 전통 유학에 영향을 미쳤고, 서구의 선진기술은 동양의 낙후된 기술에 충격을 주었으며, 서구의 페미니스트 사상은 동양의 남존여비 사상에 도전했고, 여성단체의 목소리는 각계각층에서 스며들어 퍼졌다. 같은 기간 여성이 신문과 신문에 기사를 게재하고 뉴스 사상을 밝히는 행위는 파격적이고 계몽적이다. 1920년 <매일신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과 함께 유일한 한글 신문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받기 시작했다(최이숙, 2015). 이에 <매일신보>는 여성 독자

확보를 위해 여성기자 채용을 도모했다. 1920년 7월 1일, <매일신보>는 ‘부인 기자채용’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의 추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해방이 요원하다”고 지적하며 “가정 개량과 여성계 개조를 위해 현숙하고 박학한 부인 기사를 모집한다”고 밝히면서, ‘가장이 있는 부인(기혼여성)’, ‘20세 이상 20세 이하’, ‘보통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문필의 취미가 있는 부인’을 공개 채용했다. 이러한 공개 채용 과정으로 채용된 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여성기자 이각경(李瑀瑾)이다.

이각경은 여성을 일깨우고 여성독립사상을 수립함과 동시에 학습과 인지 관찰을 통해 고부갈등 해소, 부부관계의 재정립, 주종관계의 조화 등 여성의 삶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각경의 여성관은 여성의 각성을 중심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하며 이각경은 마치 여성을 위한 ‘계몽 백과사전’처럼 당시 어둠 속에 살던 여성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희망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840년 중국에서는 아편전쟁이 일어났고, 영국 등 외래 침략자들은 강력한 무력 견제와 함께 진보적인 사상도 전파했다. 당시 일부 중국인들은 기존의 체제에 대해 각성하고 세계를 내다보기 시작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중국에서는 제국주의 침략과 당시 지배계급의 부패한 통치 등과 같은 사회불안 요인으로 새로운 사상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895년 강유위(康有爲)와 양계초(梁启超)를 대표로 하는 유신파(维新派)가 역사 무대에 등장해 유신변법사상을 적극 홍보한 가운데 여성 지위 문제가 사회적으로 처음 거론됐다. 이런 사상에 힘입어 중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저널리스트가 탄생했다. 그렇게 탄생한 중국 최초의 여성기자는 강동위(康同薇)였다.

강동위는 여성 교육을 중시하고 진흥시키며 여성을 박해하는 봉건사상을 폐기할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봉건여성관으로부터 신현처양모형 여성관에 이르기까지 강동위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여성관을 견지하면서 최초로 여성 문제에 대해 제기했다(徐矜媯·高妍 2017). 이와 함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식을 배우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당시 한국과 중국의 사회 환경이 유사했던 만큼 양국 최초의 여성기자로서 이각경과 강동위의 사상, 관점 등에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여성관은 당시 독자 특히 여성 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성관은 여성의 정체성 역할에 대한 인식, 인지 및 평가와 같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형성된 관념적 의식이다. 여성관은 정치, 경제, 교육, 종교, 결혼, 철학 등의 측면에서 여성의 지위와 가치를 측정하는 것과 같이 단편적일 수 있으며, 여성 주부 역할 또는 여성 교육자 역할

에 대한 가치 측정과 같은 체계적일 것일 수도 있다. 여성관은 여성의 이미지와 사회적 지위가 사람들의 의식에 반영되는 것으로 사회적 개념의 한 형태이며 국가, 지역, 문화, 시대, 그룹 및 성별에 따라 다른 여성 개념이 생성된다. 여성관에 대한 연구는 해석과 재구축이 사회에서의 여성 집단의 위상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여성 집단의 해방과 발달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刘方, 2012).

이들은 당시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사상을 접하며 봉건사회의 속박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여야 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들의 사상은 동시대 및 이후의 여성기자들의 여성관을 계몽하는 역할도 했다. 그들은 언론활동을 통해 봉건사회의 여성에 대한 사상적 속박을 비판하고 여성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 당시 여성들의 눈과 입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 거대한 변혁 속에서 언론활동을 통해 당시 사회의 여성들을 각성하게 하고 변화를 촉진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이각경와 강동위가 이러한 사회적 변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이들의 언론활동과 생애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최초 여성기자인 이각경와 강동위의 언론활동과 일화를 통해 그들의 여성관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여성관을 발현하게 했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한국과 중국 근대 사회의 여성관

#### 1) 한국 근대 사회의 여성관

20세기 초 조선 사회는 식민지 환경 아래의 봉건사회였다. 고려 시대 말기부터 시작된 주자학의 영향으로 한국 전통사회는 남존여비(男尊女卑)의 봉건적 폐습을 유지해 왔다. ‘남녀유별(男女有別)’,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岁不同席)’ 등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규범과 함께 여성의 정치와 법률의 참여도 허용되지 않았다(정진석 2004). ‘현모양처’를 한국 여성들이 추구하는 목표로 삼고, 여성들은 남편에게 절대복종하며 집안일밖에 할 수 없었다. 혼인 문제에서 여성은 남편을 선택할 권리가 없고, 부모가 독단적으로 배우자를 결정했으며 결혼 후에는 여성의 외출 또한 제한되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부모의 통제안에 있었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했다. 여성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였음에도 당시 봉건사상에 의해 많은 부분이 억압되었다(정현백, 2006).

상고시대(上古时期)부터 삼국시대(三国时期) 중기까지 한국 여성들은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고, 생활은 대부분 가정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주자 예교(朱子 礼教)의 번잡한 예절에 구애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 여성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삼국시대 중후반에 이르러 가부장제가 더욱 강화되고 학교 교육제도가 확립되면서 여성을 우리 사회의 변방으로 밀어내고 사회적 발언권을 남성이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유교문화(儒教文化)가 유입되면서 학교에서는 《시경》, 《서경》, 《오경》 등의 유교 경전을 교육내용과 하였고, 여성은 삼종 사덕 등 지배계급에 유리한 유교적 도덕규범의 영향을 더욱 받게 되었다(장세화, 1991).

고려 시대 들어 지배계급은 불교를 국교로 삼으면서도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아 유교의 도덕규범으로 여성을 제한했다. 고려시대 말까지만 해도 여성의 삶은 전반적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이었다. 절에서 외박도 할 수 있고, 남성과 함께 야외에서 다양한 종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남편이 죽은 뒤에도 수절하지 않고 재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불교가 배척되고 그 지배적 지위가 유

교로 대체되면서 유교는 조선왕조의 지배사상이 되었다. 지배계급은 성리학의 윤리 도덕규범을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주자학의 가치관에 따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에 서부터 사람들의 개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규범화하였으며, 성리학의 명분론과 정통론에 입각한 유학 사상은 비교적 보수적인 유학자나 양반사회는 물론 일반 서민사회에도 널리 보급되었다. 이때부터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근본적으로 변했다(김동대, 2022).

김향화(金香花, 2007)는 다음 네 가지를 요약했다. 먼저 성리학의 유학 관념에 따라 이전의 각종 풍속을 철저히 개혁하였다. 지배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혼인의 예, 인륜의 대강(婚姻之禮, 人倫之大綱)’은 ‘삼강의 근본(三綱之本)’이며, ‘남자는 여가에 귀향한다(男歸女家)’는 혼취 방식은 ‘일종의 양(以陽從陰)에 따라 음을 따른다’는 ‘대과불변의 폐습(大繆不然的陋習)’, 오직 ‘친영지례(親迎之禮)’만이 ‘법의 지미자(法之致美者)’이기 때문에 영접 방식을 강력히 주장한다. 세종 17년(1443)에 파원군 윤이 먼저 태종의 딸 숙신옹주(淑愼公主)를 친영의례로 삼았다. 중종 13년(1518년) 김치운(金致雲)이라는 민간인이 혼례를 치르면서 서민들 가운데 처음으로 혼례를 올리게 된 선례이다. 영접제(迎親制)가 성행한다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 고유의 ‘남귀녀집(男歸女家)’ 혼혼제가 점차 사라졌다는 뜻이며, 여성의 지위가 낮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둘째, 내외법(內外法)을 제정하여 여성의 자유로운 출입을 금지하였다. 내외법에는 ‘무단으로 절에 제사를 지내는 아낙네나 성안의 야외에서 제사를 지내는 자, 사족 부녀로서 산속을 돌아다니거나 서낭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자에 대하여 백 대를 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내외법 제정은 여성의 자유로운 출입을 철저히 막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들을 제한했다. 게다가 당시의 교육기관, 즉 중앙의 성균관, 지방의 향교 및 각지의 서원과 서당 등은 양반 자제들에게만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입으로 전해주는 가정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 교육 내용도 가정생활에 필요한 가사 노동 기술 등에 국한되어 있다.

셋째, 여성의 재가(改嫁)를 엄격히 금지한다. 성리학의 도덕적 규범은 정절 관념을 매우 중시하고, 오로지 여자의 정조를 가혹하게 요구하며, 열녀를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여겼다. 또한 미망인의 재가(중종 13)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여성의 재가를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여성의 자손이 어떠한 벼슬(성종 8)도 하지 못하게 했다.

넷째, 정부는 성리학(性理學)의 도덕규범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여성 교훈

서 발간 활동을 전개했다. 조선 세종 13년(1431) 집현전 부제학 계륜 등 3인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한문판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가 처음 발간됐다. 성종 6년(1475)에는 소혜왕후(昭惠王后)가 쓴 내훈(內訓)을 간행했다. 그 외에도 중종 12년(1517)에 중국의 《소학(小學)》, 《열녀전(列女傳)》, 《여계(女戒)》, 《여칙(女則)》 등의 여서서, 중종 37년(1542)에 유향(劉向)의 《열녀전》, 1737년에 이덕수(李德壽)가 번역한 여사서 등 다양한 중국 여고서가 번역 출판되었다. 위 여운에서 당시 가장 널리 알려졌던 것은 ‘삼강행실도’와 ‘내훈’이다. 삼강행실도는 군신, 부자, 부부의 삶 강의 전범인 충신, 효자, 열녀의 행적을 담은 책으로 총 3권으로 충신, 효자, 열녀를 각각 35명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서 ‘삼강(三綱)’은 주로 유교에서 제창하는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처강(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妻綱)’을 뜻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에게 ‘부위처강’을 강조한다. 소위 ‘남편은 아내의 강령’이라 함은 아내의 남편은 신하가 군주를 대하는 것과 같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질은 봉건적 위계 제도를 공고히 하고 부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소혜황후의 ‘내훈’도 삼강오륜의 유교윤리에 따라 삼종의 도리와 정절관념을 절대화하여 주로 여자의 덕행을 기르고 심신을 닦으며 부도를 지켰다. 이처럼 주자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에는 제대로 된 여자학교 교육은 없었지만, 주자학의 남존여비의 사회적 여자 도덕규범은 여러 여교훈서뿐만 아니라 여러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여성을 교화시켰고 구체적인 여성 행동규범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여성 교육은 남존여비의 여성관을 더욱 강화시켰다(金香花 2007).

이처럼 한국 전통사회의 여성 교육은 가부장제 치하에서 여성을 사회적 의사결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들은 가정에서 어머니의 요리 가사 훈련과 가부장제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덕목을 익혀야만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은 당시 여성의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가사 능력을 향상했지만, 이론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능력은 향상하지 못했고, 이는 여성의 재능을 억압하여 남성의 종속물로 전락시켰다(조경원.1995). 건강하지 못한 여성관은 세심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존엄성을 억압하고, 자유롭고 행복을 추구하는 독립의식을 억압하며, 그들 자신이 저능하다고 느끼게 하고, 남성에게 종속되고 의존하는 지위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발전의 기회를 상실한다.

## 2) 중국 근대 사회의 여성관

이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두 최초의 여기자의 여성관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여성관의 형성과 사회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중국 여기자 강동위는 중국 유신의 변법기에 있으며, 먼저 중국 근대사의 구분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했다.

호승(胡繩, 1998)은 ‘중국 근대 역사의 분기별 문제(中国近代历史的分期问题)’라는 글을 발표하여 다양한 분기적 방법의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는 계급투쟁을 분기 기준으로 중국 근대사를 1840-1850년, 1851-1864년, 1864-1895년, 1895-1900년, 1901-1905년, 1905-1912년, 1912-1919년의 7단계로 구분했다. 호승의 분기 방법은 중국 사학계에서 인정받았고, 1950년대 중국 사학계에서 근대사 분기 문제에 대한 큰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학계 정문에서는 사회경제와 계급투쟁, 갈등의 성격 변화를 분기 기준으로 삼아 근대사의 각 시기를 보다 과학적으로 구분하려 하고 있다. 이시약(李时岳, 1980)은 ‘양무, 유신에서 부르주아 혁명으로(从洋务、维新到资产阶级革命)’라는 글을 발표해 근대사에 대한 사학계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그는 근대사를 1840년부터 1919년까지 농민전쟁, 양무운동, 유신운동, 부르주아 혁명의 4단계로 보고 있다. 후대 학자들은 이 기준에 대한 지지와 반대가 엇갈리고 있으며, 아직 중국 사학계에는 근대사 구분에 대한 표준 답안이 없다.

사학계에서는 근대사 구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신 변법은 중국 근대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이정표적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강동위의 신문활동 기간을 총칭하여 유신 변법기라고 하다. 좁은 의미의 유신변법은 1898년 6월부터 9월까지 강유위와 량치차오를 지도자로 하는 유신 인사들이 서양의 연구와 정치제도 개혁을 옹호하는 개량 운동을 말한다. 변법은 봉건적 수구파들의 이익을 해쳤기 때문에 9월 21일 서태후는 무술정변을 일으켜 광서제를 중남해까지 가두어 유신변법은 실패로 돌아갔다.

넓은 의미의 유신 변법시기는 1895년 버스에서 서적을 시작으로 1898년 9월 21일 실패로 끝났으며, 그 기간 동안 《중외기문(中外纪闻)》, 《시무보(时务报)》, 《국문보(国闻报)》 등 유신사상을 선전하는 신문의 창간과 각지의 학회들의 설립이 이 시기에 속한다고 사학계는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강동위의 뉴스 활동 시간은 이 기간에 속하므로 강동위의 뉴스 활동 기간 표현으로 유신 변법 기간을 사용한다.

원시시대에는 여성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고, 남성은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의 지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남성은 점차 생산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여성이 만성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구축되기 시작하여 여성은 종속적인 지위로 전락하여 사회적 지위가 하락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영향으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점차 형성되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기본적으로 딸, 아내, 어머니는 전통적인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주요 차별화의 대표자이며 딸은 가부장적 권리에 복종하고 혼인은 자주적이지 않으며 아내는 부권에 복종하고 교육은 현명하며 어머니는 가정에 복종하고 직업은 가정 노동을 위주로 한다 (施延吉, 胡晓林, 2017).

역사적으로 중국은 항상 남성을 존중하는 사회였으며 전통적인 정치, 경제, 문화는 여성을 대중의 시야에서 배제했으며 이러한 통념은 여성에게 열등감과 자기 인식의 불확실성을 느끼게 했다. 중국 고대 전통 여성관은 사회적 분업 방식, 봉건적 종교 제도, 유교적 억압으로 구성되어 있다(刘毅程, 2015).

첫째, 사회적 분업 방식으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00년 이상 지속된 중국의 사회적 분업 방식은 남성 농업과 여성 직물이며 경제는 농업과 가족 수작업이다. 그러나 농업은 항상 사회의 주요 경제적 원천이었고 농업 생산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의 가정 수공업품은 소득 비율이 낮아 남성과 여성의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초래했다. 농업이 주된 봉건사회에서 여성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웠고 점차 남성에게 의존하는 전통적인 여성관으로 변했다.

둘째, 봉건적 종법 제도는 여성에게 다양한 억압을 초래했다. 중국은 주나라 시대에 이미 완전한 봉건 종법 제도를 발전시켰다. 봉건적 종법적 지급은 극도로 가혹하게 여성을 구속했고, 여성의 독립사상은 종법 제도의 오랜 억압으로 점차 사라졌다. 재산상 봉건적 종법 제도는 여성이 가정에서 어떠한 사유재산도 향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은 남성에게만 의존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종법 제도는 여성이 재능이 없는 것이 덕이며,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해야 할 발언권이 많지 않다.

셋째, 유교 문화(儒教文化)는 여성에게 무거운 억압을 가져다주었다. 유교 문화는 행동강령으로서 여성에게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유교 문화는 남녀가 삼종 사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은 이러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아에 대한 여성의 사상에 대한 생각을 점차 사라지게 된다.

중국 근대 사회에서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사회가 불안했지만, 그 한편으로는 새

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신문은 다른 나라의 문화나 기술 등 선진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으며, 이는 신문의 번영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저널리스트에 대한 수요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신문은 유신사상을 전달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됐고,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배우려는 열풍이 불었다. 이에 당시의 중국신문들은 일본의 저서를 상세하게 번역하고 일본의 제도, 기능, 지식 등을 중국에 소개했다. 이러한 활동은 변법자강운동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여성관은 시한(西汉)에서 청나라 말까지 추상적인 윤리 부분은 물론 구체적인 행동 규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담아내고 있다. 여성에 관한 모든 도서에는 부덕(妇德), 부직(妇职), 규문(闺门礼仪) 의례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여성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천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남존여비(男尊女卑)’이다. 둘째, 재능보다 덕을 중시하는 것이다. 셋째, 정조를 지키는 것이다(杜学元, 2004). 하지만 역사의 진보와 함께 전통적 여성관은 무너지고 근대적 여성관이 대두되었다.

### 3) 여성관에 관한 선행연구

여성관이란 여성들에 특정한 사상의식과 가치관념에 대한 견해를 말한다. 여성관은 여성의 역할관, 가치관, 도덕관, 지식관, 능력관, 심미관, 교육관, 인재관, 직업관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사회정치, 경제, 문화 등 종합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을 말한다(倪愷襄, 2015).

개인의 발전 과정에서 환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인격형성은 환경의 영향을 떠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능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체와 환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진다(黄希庭, 2002).

일반적으로 여성관은 사회 규칙, 도덕규범 및 민속 풍습 등 현실 생활 중에서 여성에 대한 행동 요구로 나타난다. ‘여성’은 비서구 식민사회에서 전통과 근대, 낡은 것과 새로운 것, 민족적인과 외래적인 것이라는 대립을 둘러싼 논쟁의 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김수진, 2009).

칭리핑(卿丽萍, 2013)은 중국 학계의 여성관에 대한 연구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

째, 근대사회 중요한 사상가인 황준시엔(黃遵憲)의 여성관에 대한 연구인 구원유(邱遠猷, 2006)의 ‘황준시엔의 여성관과 남녀평등관(黃遵憲의女性觀及男女同權論)’이다. 둘째, 여성의 자립관에 대한 연구인 진문련(陳文聯, 2006)의 ‘20세기 초 계몽적 여성의 자립관(論20世紀初先進女性的自力觀)’이다. 셋째, 여성교육 정책과 패러다임, 사회변형 등에 주목하여 근대 여성관의 발전, 변천에 대해 연구한 고량옥(古良玉, 2006)의 ‘중국 근대 여성관의 변화와 여성학교 교육(中國近代女性觀的演變與女子學校教育)’이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근대 여성사 연구에서 여성관에 대한 연구가 이미 일정한 규모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관 연구는 대부분 교육정책에서 출발하여 교육정책의 변화를 바탕으로 중국 여성관의 변화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한국 최초의 여성기자 이각경와 중국 최초의 여성기자 강동위의 언론 활동을 통해 두 여성기자의 여성관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근대 여성관의 확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선교사들의 남녀평등관 선양과 여학 제창, 둘째, 진보적 인사들의 서양 여학관에 대한 인정과 소개이다.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전통적인 가족여성관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시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자녀를 부양하며 가사를 책임지는 등 가족의식이 뚜렷한 여성으로 그려져 왔다. 여성들은 가족을 최우선시 해야 하고, 개인의 독립적인 사상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대 사회의 여성관은 여성에게 뚜렷한 새로운 특징을 부여하였다. 이는 직업발전 추구, 자립갱생, 조국 사랑, 나라에 대한 공헌, 빈곤에 대한 관심, 공익에 대한 사랑 등으로 종합할 수 있다(谷忠玉, 2008).

중국의 근대적 여성상은 다음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양계초(梁后超)로 대표되는 여학 사상. 결혼 전에는 직장에 다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을 돕고 자녀를 가르치는 이상적인 여성. 둘째, 엄복(嚴復)로 대표되는 여학 사상. 모성을 인생의 가장 큰 책임과 의무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 셋째, 김천용(金天融)로 대표되는 여학 사상. ‘국민의 어머니’가 되어 새로운 국민을 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여성. 넷째, 강유위(康有為)로 대표되는 여학 사상. 남성과의 평등한 지위, 평등한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이상적 여성이다(李詩毅, 2021).

강유위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는 여성의 이상과 달리 여성의 지위와 권리에 더 신경을 썼다. 강유위의 견해에 따르면, 난세(亂世), 승평세(升平世), 태평세(太平

世)는 사회 발전의 필수적인 3단계이다. 당시 중국은 난세에 처해 있었고, 유럽과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는 승평세에 처해 있었으며, 미래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태평세이다. 단계마다 여성의 지위도 다르게 규정되는데, 대체로 난세에서 여성은 남편에게 의지해야 하며, 남편의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평등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승평세에서는 여성이 남편의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 독립권이 없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며, 여전히 남편에게 의지해야 한다. 태평세에서는 여자가 독립권을 가지며 모든 것이 남자와 다름없다(康有为, 1901).

중국은 아직 난세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태평세에 진입할 수 있을까? 강유위는 <대동서 여자 승평세 독립 지제(大同书女子升平世独立之制)> 1절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첫째, 여학을 설립하여 남자학교와 같게 해야 한다. 둘째, 선거, 수험, 벼슬, 스승 등은 재능만 따지고 남녀를 불문해야 하며 여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여자는 의원으로서 국무를 수행하며 남자와 다를 바 없어야 한다. 넷째, 아내와 남편은 법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다섯째,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을 금지하고 여자의 이름을 돌려줘야 한다. 여섯째, 혼인이 자유로우며 부모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20세 이전의 조혼은 금지되어야 한다. 여덟째, 여자는 성인이 되면 출입, 사교, 관람, 연회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아홉째,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족(발 묶기), 허리 묶기, 귀와 코를 꿰어 장신구 사용 등의 풍습은 금지되어야 한다. 열 번째, 여자는 남자로부터 독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남자와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열한 번째, 여자와 남자의 옷 장식이 같아야 한다. (康有为, 1901)

신여성은 특정 사회문화 개념으로 무술변법 시대에 강동위, 이혜선(李仙慧) 등은 강유위, 양계초 등과 같은 지식인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인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여자학교, 최초의 여성 전용 신문인 <여학보>와 최초의 여성 사회단체인 여학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중국 근대 여성해방운동의 시작을 의미하며 이들은 근대 최초의 영향력 있는 여성 활동가였다(徐飞鹏, 2022).

## 2. 한국과 중국 최초 여성기자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1) 한국 최초 여성기자 이각경에 대한 선행연구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중국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여성 기자협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한국여성기자 100년>을 출판했다. 그 가운데 김은주(2021)는 <시대의 여명을 연 여성 기자들: 부인기자 1호 이각경, 금녀의 땅에 첫발>이라는 연구에서 이각경의 언론활동과 여성관 구현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이 글에서 김은주는 이각경이 기자활동을 통해 자신의 독립적 여성관과 자아 각성을 융합하여 당대의 여성들이 봉건사상으로 인한 나타난 여성 억압과 속박을 직시해야 함을 폭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상생활 속의 상하관계, 고부관계, 부부관계는 모두 여성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이각경의 사고를 보여준다. 김은주(2021)의 이각경의 언론활동에 대한 연구는 그 시대 속 이각경 여성관의 진보적인 발전과 각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공론장에 글쓰는 여자가 출현한 것은 여성문학사의 기원을 이루는 중요한 장면이다. 김양선 역시 글에서 <제국신문>,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에 게재된 여성 독자 기고가 당대 계몽 담론, 민족주의 담론과 맞닥뜨리면서 여성이 자신의 소양 능력을 드러내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김양선, 2020).

신문의 ‘여성이란’은 일반적으로 여성 기자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여성 독자들의 이야기가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특성을 갖는다(Cartter, 2004). 1920년 7월 1일 <매일신보>는 ‘부인 기자채용’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의 추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 해방이 요원하다”고 지적하며 “가정 개량과 여성계 개조를 위해 현숙하고 박학한 부인 기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가장이 있는 부인(기혼여성)’, ‘20세 이상 30세 이하’, ‘보통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문필의 취미가 있는 부인’이었다. 첫 번째 요건이 기혼 여성이므로 명칭도 ‘여성기자’가 아니라 ‘부인기자’였다. 이에 응시해 선발된 사람이 바로 이각경이었다. 이각경은 <매일신보> 첫 공채 기자이자 한국의 첫 번째 여성기자인 것이다(최옥자, 1978).

<매일신보>는 1920년 민간지들이 창간되기 전까지 단 하나뿐인 한글 신문으로서 근대 언론사에서 그 의미가 있다. <매일신보>는 비록 총독부 기관지이기는 했지만 총독부 홍보기사만 실은 것은 아니었고 이광수의 ‘무정’ 같은 문학작품을 소개하기도 했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이희정, 2011). 1920년 3월, 4월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창간됨에 따라 유일한 한글 신문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던 <매일신보>는 이들 민간지와 경쟁을 벌여야 했다. 여성 기자채용은 여성 독자 확보를 위한 상업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김경남, 2022).

<매일신보>는 1920년 9월 5일자 기사에 “금회에 본사에 입사한 부인 기자 이각경 여사, 오늘의 부인사회를 위하여 건전한 붓을 휘두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이각경의

입사를 알렸다. 이각경은 조선 사회가 예전부터 여성을 멸시하고 남성의 종속적 물건으로 취급하고 절대복종하게 하고 여성을 무능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자신이 기자가 되어 책임이 무겁다는 내용의 ‘입사의 변’을 발표했다(김은주, 2014). <매일신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각경의 기사는 40여 건이다. 1920년 9월 14일, ‘부인 기자의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첫 기사가 나갔고, 이후 가정방문 기사, 봉건적 가정생활의 폐해를 지적하는 계몽 기사, 생활개량 기사가 위주로 여성기자로서의 언론활동을 펼쳤다.

이각경이 쓴 기사 제목을 보면 <금일 시대는 여자 교육 시대>, <자유와 개방적 생활 오늘 날은 남자만 의뢰하지 말고 각기 자유롭게 활동해야>, <축첩에 대한 이해>, <유랑하는 남자의 회개는 부인의 충고에 있음>, <시부모, 며느리도 자식이거늘 왜 그리 노예시하는가>, <조혼의 악습을 타파>, <황폐한 예의를 개선하라>, <위생에 관한 주의>, <신구 절충주의: 혼례식은 이렇게 함이 좋아>, <조선 부인들의 아동교육>, <부인의 머리치장에 대하여>, <부인의 부업 필요> 등 계몽적인 기사가 많았다. 이를 통해 이각경은 교육받은 여성으로서 그렇지 못한 여성들의 계몽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1921년 1월 1일 <매일신보> 1면에 이각경은 논설 “신년 벽두를 제하여, 조선 가정의 주부께”를 실었다. 이각경은 이 글에서 “우리 조선은 날로 변해가는 이 시대를 마주하며 지난 시대의 범절만 지킬 수도 없고 또 나날이 달라지는 풍조를 모두 숭상할 수도 없다”라며 다만 여성들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고칠 게 있으면 고쳐 나가자고 주장했다. 남자기자들이 다루기 힘든 가정방문 기사는 당시 기준으로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가정을 대상으로 했다. 일반 독자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개화되고 유복한 가정을 찾아다녔다. 가정생활에서 봉건적인 요소를 지적하고 여성들의 자각을 촉구하는 기사를 여러 편 실었다(김은주, 2014). <가정부인>, <부인과 가정>이라는 고정 제목으로 조혼, 축첩, 며느리 학대, 부부간 불평등 등 가정생활의 불합리한 봉건적인 요소들을 지적했으며, 아동교육, 교양, 위생문제 등을 다룬 기사들을 통해 여성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서구 여성 중에는 과학자도 많고 여성들이 직접 부인적십자사나 보육원 같은 것을 운영하기도 하며 정치, 상업, 공업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데 비해 조선 부인들은 사회활동에 관심이 없다고 통탄했다.

하지만 이각경의 개인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이각경은 1897년 2월 19일 서울에서 출생했다. 한성여자고등학교(경기여고 전신) 기예과에 이어 사범과를 졸업하

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으나 집안의 반대로 귀국했다. 전우영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가정생활에 소홀했으며 시부모의 학대가 심해 기자 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다(정진석, 2002). 1920년 <매일신보>에 입사한 후, 1921년 4월 25일자에 실린 '신구 절충주의, 혼례식은 이렇게 함이 좋아'라는 기사를 마지막으로 그의 기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각경은 1925년 7월 27일 남편의 외도에 따른 가정불화를 비판하여 음독자살을 시도한 사건으로 신문에 등장한다. 기사에서 이각경의 신분이 공립 마포 보통학교 여교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각경은 <매일신보>를 그만두고 교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자택에서 치사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응급치료를 했으나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신문들은 담당 의사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직전에 남편과 기생 애인이 경성 교외에서 밀회를 즐기다 본처인 이각경에게 발각된 후 기생이 음독자살한 일이 있었다. 대부분의 신문이 이 사건을 전하며 기생의 자살과 이각경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각경은 평소 남편, 시부모와 갈등이 심해 이미 수차례 음독한 경험이 있었다. 이에 더해 가정불화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기생의 자살이 자신과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알려진 것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진석, 2002).

이각경의 가족 제적부에는 이각경이 1936년 2월 24일, 39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신문 기사에서처럼 1925년 7월 음독으로 사망한 것인지, 제적부의 기록대로 1936년 사망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망 시점과 상관없이 1925년 7월 자살을 시도한 이후 이각경은 완전히 잊혀졌다. 제적부 기록대로라면 이각경은 자살을 시도한 후에도 11년이나 더 살아있었다. 이각경의 뒤를 이어 민간지에 여러 명의 여성기자가 등장했다. 이각경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에 신문이나 잡지 기고문, 여성 기사를 비롯해 여류명사들의 근황을 다룬 기사, 여성 기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좌담 기사들에서도 이각경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김경남, 2008).

이각경은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신교육을 받았고 직업을 가진 신여성이었으나 봉건적 사상이 지배하던 조선 사회의 여건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여전히 보수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봉건적 미덕은 쉽게 변화되지 않았다. 여성들을 억압하는 봉건 사회의 폐단에 대해 문제는 제기했으나 해결방안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는 식이었다. 즉, 이각경이 내놓은 해결책들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렀을 뿐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여성의 문제가 사회 구조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 여성의 문제로 치

부되었고, 개개인이 노력하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2) 중국 최초 여성기자 강동위에 대한 선행연구

송소홍(宋素红, 2002)은 <중국 최초의 여성기자는 누구인가? 구육방인가? 강동위인가?(<中国最初女记者是谁? 裘毓芳还是康同薇?>)라는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중국 역사상 여성기자의 확립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과공진(戈公振, 1927)은 <중국신문학사(中国报学史)>라는 책 130쪽에서 “우리나라 신문계의 여자, 구육방(裘毓芳) 여사가 1인자로 있다”고 주장했다. 구육방이 최초로 신문 활동을 시작한 것은 1898년 5월 11일 그의 숙부 구정량(裘廷梁)을 도와 <무석백화보(无锡白话报)>를 창간하고 편집 업무를 맡으면서인데 이 신문에 필명으로 많은 글을 실었다고 했다. 바로 이 글 때문에 훗날 수많은 여성운동사, 신문산업사 혹은 관련 논문에서 중국 최초의 여성기자를 언급할 때 구육방을 꼽았고, 이는 보편적인 견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송소홍의 연구에서는 구육방이 언론활동을 하기 1년 전인 1897년, 강유위의 딸 강동위가 이미 마카오 <지신보>에서 언론활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따라서 송소홍의 연구에서는 강동위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언론활동을 시작한 여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소홍의 이 연구에서는 강동위에 대한 소개가 매우 간단했고 강동위의 언론활동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옥정(刘煜程, 2015)은 ‘청나라 말기 여성신문인과 중국 여성의 인격전환 연구: 강동위, 추근을 연구대상으로(清末女报人与中国女性的人格转型研究: 以康同薇、秋瑾为研究对象)’라는 연구에서 강동위를 동시대 여성기자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설명했다. 강동위는 일부 진보적인 지식여성들과 함께 <여학보>를 창간하여 ‘중국의 쇠락은 사기부진 때문임을 논함(论中国之衰由于士气不振)’과 ‘여학이폐설(女学利弊说)’이라는 기사를 발표하여 봉건적 여성관이 여성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였고, 전족반대 운동과 여학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결합하여 여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강동위가 언론활동을 통해 제시하는 여성은 봉건적 전통여성상에 비해 다소 진보적이었지만, 전통적인 상부교자(相夫教子)의 정신을 계승한 ‘신현처양모’형 여성관으로, 여성의 독립적인 의식에 대한 실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刘煜程, 2015). 중국 학계에서 강동위를 중국 역사상 첫 여성기자로 인정한 후, 강동위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도 점차 진행되었다. 유옥정은 강동위의 언론 활동과 언론 사상에 대해 비교

적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의 사회, 정치, 문화 등 다방면으로 강동위의 언론 활동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강동위의 여성관에 대한 논의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 최초의 여성기자 강동위의 여성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봉쇄의 문이 열렸고 외국 열강과 불평등조약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청나라의 통치가 약화되었고 백성들의 삶이 고달파지면서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사상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를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중국의 첫 여성기자 강동위였다. 강동위는 1879년에 태어났고 자(字) 문간(文間)이며 호(號)는 위군(薇君)이고 광동남해(廣東南海) 사람으로 유신변법운동(維新變法運動)의 선두주자 강유위(康有為)의 딸이다(余麗芬 1995). 강동위는 성장 과정에서 유신변법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그의 사상은 점차 독립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당시 중국의 전통적인 봉건 여성들의 사고방식과는 매우 달랐다.

1897년, 강동위는 아버지 강유위의 영향 하에 <지신보(知新報)>에 들어가 신문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여성평등을 외치며 여학을 주장했고, 여성사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그의 언론활동은 자신의 독립적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고, 유신변법운동을 촉진시켜 당시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신변법 기간 중 유신 여론을 고취하는 것으로 유명한 신문으로는 상해의 <시무보(時務報)>, 북방의 <국문보(國聞報)>, 남방의 <지신보(知新報)>가 있다. <지신보>는 1897년 2월 22일 마카오에서 창간되었고 중국 남부 지역에서 유신파 지식인들의 사상을 홍보하는 주요 신문이었다. 강동위는 30호부터 이 신문의 일본어 번역을 맡았고 기사도 쓰기 시작했다. 1898년 2월부터 강동위는 <지신보>의 일본어 번역가였던 야마모토 마사요시(山本正義)의 일을 수행했다. 강동위가 번역한 일본어 신문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신문지 및 정론성 신문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 여기에는 일본의 <신문(報新聞)>, <시사신보(時事新報)>, <내각관보(內閣官報)>, <나가사키(長崎新報)>, <오사카매일신문(大阪每日新聞)>, <도쿄시사신문(東京時事新聞報)>, <도쿄시사서문보(東京時事西文報)>, <도쿄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 <태양보(太陽報)> 등이 포함됐다. 번역 외에도 강동위는 <중국의 쇠퇴는 사기 부진 때문임>, <여학의 이해득실설> 등 자신의 변법 주장을 펴는 평론을 적극적으로 기사화 했다. 또한 진보적인 여성 지식인들과 함께 <여학보>를 창간해 언론활동을 수행했다(宋素紅 2003).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억압받는 사회에서 구속을 타파하고 중국 최초의 여성기자로서의 활동을 시작

한 것이다.

중국 여성들은 수천 년을 이어온 봉건 예교와 전통 문화의 영향을 받아 보편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오랫동안 가정 속에 갇혀 새로운 문물의 출현과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사회 환경에서 강동위가 저널리스트로 된 것은 여전히 많은 억압을 받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강동위는 당시 여성의 본보기가 되었다.

강동위는 유년기에 아버지인 강동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강유위는 “지금은 가정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많은데 문학에 능통한 여성은 적다. 하지만 이런 덕과 재능을 겸비한 여성은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중국 문학 경전은 서적 종류가 많고 의미도 많으니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유익할 것이며 나중에 신문사에 들어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르쳤다. 이처럼 강동위는 기본적인 듣기, 읽기, 쓰기 및 분석 능력, 신문 업계에서의 성과, 정확한 가치 판단과 분석,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 수립 등에 있어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宋素红, 2006).

근대 중국 사회는 중요한 변혁 시기였다. 경제적으로는 자급자족 경제가 무너지고 상품경제와 자본주의 민족공업이 발전했다. 사상적으로는 과거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지식인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서양의 진보적인 자연과학 지식과 민주적 개념을 중국에 도입하여 중국 전통사상문화의 근대화 전환을 크게 촉진했다. 동시에 여성을 재발견하였으며, 당시 중요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양계초, 강유위 등은 여성 교육과 여성의 지위, 남녀혼인 등 여성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민족의 위기가 심화되었고 서양 여성 해방 사상이 도입되면서 여성 문제는 사회인들로부터의 광범위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강유위를 비롯한 초기 유신파 지식인들은 전통적인 남존여비, 중덕경재의 여성관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여학 진흥과 전족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여성 해방 사조를 주도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강동위의 여성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후기 강동위의 언론활동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런 사조가 발전하면서 중국의 여성관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강유위의 핵심적인 여성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자 강동위의 여성관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여학을 진흥시키는 것이다. “여자는 재능이 없는 것이 덕”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여학을 제창한 것은 근대 지식인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그러나 왜 여학을 진흥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진흥시켜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다른 관점이 제시되었다. 무술년 전, 여학을 제창했던 기본 논리는 서양을 모델로 삼고 중서양 교육의 상황 대비를 통해 여학의 중요성을 정하는 것이었다. 무술년 이후에 유행한 여학관은 여성의 능력, 지능, 국가 개혁 발전의 필요성 등에 더 치우쳐 있었다. 신해혁명 시기에는 페미니즘의 도입과 함께 여학 진흥은 국가 수요에서 여성의 기본권리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여학 진흥은 더 이상 국가를 진흥하는 수단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향유하는 하나의 권리가 되었으며 남녀권리의 평등에 대한 각성과 인정이 반영되어 있다(卿丽萍, 2013).

둘째, 전족(발을 묶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다. 전족은 중국 전통 사회의 악습이다. 여자가 어렸을 때 천으로 발을 묶어서 발뼈를 변형시키고 발끝을 작게 만들어 발꿈치로만 겨우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근대 이후 많은 지식인들이 전족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했는데,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전족을 금하자’고 선언한 것은 미국 선교사 임락지(林樂知)가 주필로 활동한 <만국공보>였다. 이 신문은 1875년부터 여러 차례 기사를 공개 발표하여 생리학, 정형과학, 유전학 등의 관점에서 발을 묶는 피해를 호되게 질타했다. 1879년부터 양계초, 담사동은 전족 금지에 관한 글을 많이 발표했는데 1898년 강유위는 광서황제에게 올린 <청금 부녀 포족절(請禁婦女纏足)>에서 국가, 가정, 개인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전족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면서 “나라의 정법으로 논하면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것이고, 가정의 자비로 논하면 부모의 인애를 해치는 것이고, 사람의 건강으로 논하면 뼈를 부러뜨려 장애를 주는 것이고, 군사적 경쟁으로 보면 저질적인 요소가 인종 유전에서의 연속이며, 미관으로 논하면 이웃나라에 야만적이라고 비웃음을 사는 것 이니, 참을 래야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유신파는 일련의 전족 폐지 활동도 조직하였으며 1898년 유신 변법 시기에 불전족회 회원수는 총 30만 명에 달했다(康有为, 1898).

셋째, 혼인 자유를 제창하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여자의 혼인은 부모가 결정한다. 남녀는 결혼 전에 서로 만나 보지도 못한다. 결혼 후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이 있다면 이혼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아내가 먼저 이혼을 제기할 수는 없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아내는 남편을 위해 정절을 지켜야 하며 재혼할 수 없다. 전통적인 결혼 제도는 여성에게는 일종의 압박이다. 근대 이후 서양의 자유사상과 결혼 풍습이 도입되면서 혼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청나라 말기 및 민국 초기의 사회적 흐름과 풍조가 되기 시작했다. 강유위는 사상 면에서 강동위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사상적 관점은 강동위의 여성관 구축에 초석과 같은 역할을 했다. 강동위는 <여학이폐설>

이라는 글에서 먼저 중국과 서양의 여자 교육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사회 건설에 대한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사례를 통해 제시했으며, 여성도 사회 운영의 한 부분임에도 왜 남성만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비판했다. 강동위는 이러한 관점을 여러 차례 제시하였고, 많은 사례를 통해 여성이 교육을 받은 후 자신과 가족, 사회건설과 나라의 발전에 미치는 이로운 점을 제시했다. 강동위는 여성이 교육을 받으면 스스로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도 남성의 정신적 스승이 될 수 있으며, 여성의 사상도 남성을 촉진하고 일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동위는 <여학이폐설>에서 전족의 폐해를 지적하며 “게다가 전족의 폐해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전족의 폐해를 입은 사람은 온 세상에 널려 있다. 하지만 여성들이 화를 복으로 여기는 것은 올바른 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전족의 폐해를 알고 멈춘 곳도 있지만 그 이치를 아는 것은 통상의 몇몇 지역뿐이며 전족의 박해를 면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에 지나지 않는다. 전 성의 사람들은 들은 체 만 체 하고 전족의 위험을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이러한 막힌 마음을 열려면 여학을 제창하고 각성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라며 여성 교육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지적했다.

### 3. 한국과 중국 최초 여성기자가 활동한 신문

#### 1) 이각경이 활동한 <매일신보(每日申報)>

한국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1883년(고종 20년) 10월 31일 창간된 <한성순보>로 알려져 있다. 이후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가 등장했다. <매일신문>의 전신은 <대한매일신보>이다(김이영, 2004). <대한매일신보>는 대한 제국 시기에 발행된 신문이다. 1904년 7월 18일 창간된 이 신문은 영국인 배설(Ernest Thomas Bethel)이 투자하고 사장을 맡았으며, 한국인 양기탁이 총무를 맡고 박은식, 신채호 등이 주필하고 고종황제 이희의 지원을 받았다(이희정, 2007). 이 신문은 창간 후 한영합벽판이 1905년 3월 11일 폐간되었다가 1905년 8월 11일 재간되어 국한문 혼용(한글과 한문을 혼용)과 영문 두 판으로 나뉘었다가 1907년 5월 23일 다시 한글판 신문이 발행되면서 1식 3면 구도가 형성되었다. 세 가지 버전의 <대한매일신보>는 하루 발행부수가 총 1만 부 이상이였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경성일보>가 <대한매일신보>를 인수하여 제호에서 ‘대한’을 뺀 뒤 <경성일보> 자매지로

발행을 시작했다(수요역가연구회, 2002).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이 투자해 만든 신문이어서 당시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일본의 신문검열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 신문은 배일사상으로 유명한 데다 신사상과 신문화를 적극 홍보하고 세계 각국의 정세를 널리 소개한 애국계몽 운동의 중요한 신문으로 한국인에게 인기가 높아 발행부수 1위를 차지했다. 일본인들은 <대한매일신보>를 눈엣가시로 여겨 1908년 배설을 몰아내고 양기탁을 체포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 체결 이후 일본인들이 이 신문을 인수하여 <매일신보>로 개명하고 조선총독부의 관영매체로 정했다. <대한매일신보>는 총 1461호를 발행했다(리용필, 1993).

반일성향의 <대한매일신보>와는 달리 일본인이 사장을 맡은 <매일신보>는 조선 총독부와 일제의 통치에 협조적인 관제 일간지였다. <경성일보>와의 통합, 분리를 거치며 1937년 이후 제호가 <매일신보(每日申報)>로 변경되고 경영 형태는 주식회사로 바뀌었다. 이때도 주식의 과반수를 조선총독부가 소유했다. 1920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기 전까지 유일한 한국어 신문이었고, 태평양 전쟁 중 두 신문이 강제 폐간되면서 1940년부터 또 다시 유일한 한국어 신문이 되었다.

1945년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조선총독부가 해체되면서 좌파 계열 사원들 즉, 진보적인 정치, 사회의식을 가진 사원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던 중 미군정과 충돌을 빚어 그해 11월 10일 정간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속간되면서 제호가 서울신문으로 변경되었다(서울신문100년사 편찬위원회, 2004).

<매일신보>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주로 식민정책을 선전하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상은 국제 정사에 대한 보도와 논평의 편향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시대 여성의 행동과 사상을 형성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1910년대부터 <매일신보>는 여성을 보도 대상으로 하는 글을 발표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사상적 통치를 시작하였다(김경남, 2008). <매일신보>의 사설, 논설, 기사, 칼럼에는 모두 여성에 대한 사상통치의 글이 실려 있다. 김경남 교수는 '1910년대 <매일신보>의 여성단론과 식민지 여성 만들기'라는 글에서 1910년대 자료 중 <매일신보>에는 '여자', '부녀' 등의 어휘가 많이 사용되었고, '여성' 등의 어휘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여성에 대한 기사 내용은 분야별로 '여성노동', '부업' 등의 표현이 많았으며, 특히 '일하지 않는 여성', '사치와 허영에 빠진 여성'을 비판하고 일본 여성의 사례를 도입해 당시 조선 여성의 사상동화를 꾀했다(김경남, 2022).

<매일신보>에서 여성 교육을 옹호하는 것도 보다 ‘단순하고’, ‘순종적인’ 여성을 육성하기 위한 것뿐이었다. 또한 <매일신보>는 전통적인 현모양처형 여성을 바탕으로 국가주의의 가장 큰 목표와 결합해 ‘효열’을 지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혁명적 영웅적 여성을 육성하려고 했다. 이러한 사상적 억압에 순응하는 여성도 있고 반발하는 여성도 있었다(이민주·최이숙, 2016). 시간이 흐르고 사상이 개화되면서 1920년대의 조선 여성들은 보다 선진적인 교육을 받았고 독립여성의식이 각성되기 시작하였다.

신문 속 여성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칼럼의 등장과 신문의 상업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최이숙, 2015). 1910년대부터 신문은 점차 민영화 되었고, 신문 간 경쟁도 점차 증가하였는데 신문의 수익 확대와 독자층 확대를 위해 <매일신보>는 최초로 여성칼럼을 도입하고 한국 역사상 첫 여성기자를 영입했다. 1920년 7월 2일자 사고(社告)에서 한국 최초로 여성기자 채용 공고를 냈으며, 이때 채용된 기자가 바로 이각경이다. 채용 공고에서 전제조건은 “남편이 있어야 한다”였으며, 그 호칭은 “부인 기자”였다.

<매일신보>는 조선에서의 식민지 지배와 사상 동화를 강화하고 독자층을 확대하기 위해 1920년 7월 2일 3면부터 ‘부인기자’를 채용하는 기사를 실었다. 9월 14일부터 이각경이 3면에 ‘부인기자의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쓴 가정방문기를 몇 차례 연재하였는데 그 후 ‘부인기자’가 게재한 기사를 따로 발견하지 못하였고 1921년 1월 1일에 이각경이 쓴 ‘새해 시작, 조선 가정주부’라는 기사가 실렸다. 새해를 맞아 조선 가정주부들에게 전하는 4가지 조언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 기사는 6단 3개면에 걸쳐 게재되었으며, 이를 뒤 ‘가정부인’ 칼럼이 시작되었다. ‘가정부인’ 칼럼은 이후 ‘부인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변경되어 1921년 4월 25일까지 운영되었다(대한언론인회 편, 1992).

## 2) 강동위가 활동한 <지신보(知新報)>

19세기 말 중국은 암흑 속에 있었고 열강의 위기는 한 걸음씩 다가왔다. 유신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은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 중국의 발전 촉진이 필요함을 깨닫고 신문 창간, 유신사상 전파 및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신보> 이전에 유신파는 <만국공보>, <강학보>, <시무보> 등 신문을 창간했는데 그 중 <시무보>의 영향이 가장 컸지만 청나라 정부의 탄압을 받아 변법 선전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

다. 그들은 조정에 얽매이지 않고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간행물을 갈망했다. 1897년 2월 22일 <지신보>는 마카오에서 탄생했는데, 이는 강유위의 유신 변법을 홍보하기 위해 마카오를 경유할 때 마카오의 거인 허수텐(何穗田)과 협의하여 마련한 것이다(邓耀荣, 2013). 같은 해 11월 량치차오(梁后超)도 신문사에 합류했다. 일반적으로 지신보에서는 (1) 변법의 논설을 선전 (2) 황제의 조서 (3) 경성 내외의 정사의 요문 (4) 각국의 뉴스 (5) 서양의 선진 과학기술 지식 전파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그 중 각국의 신문과 과학기술 지식은 약 3분의 2를 차지하였으며, 서양 문화와 과학기술을 전파하고 민심을 계발하는 데에 주력했다(中华全国妇女联合会妇女运动历史研究室 1991).

<지신보>는 1897년 2월 22일 마카오에서 정식으로 창간되었으며, 처음에는 5일간이었으나 19호부터 순간으로 변경되었고, 112호까지 다시 반월간으로 변경되었으며, 1901년 1월 20일에 폐간되어 총 133호(중 116권 부족)가 출판되었다.

일찍이 1970년대에 강유위가 일본 책을 접하고 메이지유신 운동이 일본 사회에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기 위해 중국에서 개혁을 추진하려는 사상이 생겨났으며, 그 후 그를 비롯한 유신파 인사들이 창간한 신문들은 모두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다. <지신보>는 강유위의 유신 사상과 대일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따라 <지신보>에서는 일본에 대한 보도가 많이 다뤄졌다. 제30호부터 강동위는 <지신보>의 일본어 번역 업무를 맡았고, 1898년 2월 강동위는 <지신보>의 원래 일본어 번역자인 마사요시(山本正義)의 업무를 완전히 이어받았다. 번역 업무 외에도 강동위는 ‘중국의 쇠락은 사기 부진 때문임을 논함’, ‘여학이폐설’을 발표하여 자신의 선진적인 여학사상을 표현하였다. 또한 강동위는 선진 지식여성과 함께 <여학보>를 창간하였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한국과 중국의 근대 역사에서 남성은 항상 지배적이었고 여성은 그들을 드러내지 않는 침묵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근현대에 이르러서야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에 팽배했던 봉건제도, 유교사상 등 낙후된 통념으로 인해 여성의 활동은 억압되어 왔다. 당시 지식인들은 선진사상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한국에서는 1920년, 중국에서는 1897년에 최초의 여성기자가 등장하여 당시의 봉건사회적 특성을 타개하고 선진사상을 적극 알리기 시작했다. 이들이 바로 이각경과 강동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언론활동을 통해 이들이 어떤 여성관을 알리고자 했는지 여성역할관, 여성교육관, 남녀평등관, 사회문화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한국과 중국의 최초 여성기자인 이각경과 강동위의 여성역할관, 여성교육관, 남녀평등관, 사회문화관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한국과 중국의 최초 여성기자인 이각경과 강동위의 여성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형성 배경은 무엇인가?

#### 2.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이각경과 강동위의 언론활동 결과물인 신문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두 명의 걸출한 여성신문사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 국가별, 문화별, 사회별 여성기자의 전반적인 모습과 사상적 특성을 환원하기를 바란다. 먼저 이각경은 1921년 <매일신보(每日申報)> 여성기자로 활동하면서 총 40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현존하는 기사는 21건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존하는 21건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기사는 대부분 <가정과 부인>이라는 코너에 실린 기사로 1천 자 이내의 짧은 내용이다. 다음으로 강동위는 중국 최초의 여성 기자 유신변법의

핵심 인물인 강유위의 딸로 성장기에 아버지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며, 그 언론 활동의 목적도 유신변법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여성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왕토편은 강동위의 여학 사상은 기본적으로 근대 유신 여학의 최고 고도를 대표한다고 지적했다(王天根, 2010). 강동위는 1897년 <지신보(知新報)> 여성 기자로 활동하면서 2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중국의 쇠락은 사기 부진 때문임을 논함’, ‘여학 이폐설’을 제목으로 한 이 2건의 기사는 대략 6페이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 대상 기사는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구분	기사제목
이각경	1. 신년벽두를 제하야. 조선 가정의 주부께 (<매일신보>, 1921. 1. 11.)
	2. 조선부인들의 아동교육에 대해. 어린아이의 교육방법은 이릅니다. 이를 깨달으시오. (<매일신보>, 1921. 1. 14.)
	3. 황폐한 예의를 개선하라. 예의는 식물보다도 더욱 귀중한 것임을 깨달으라. (<매일신보>, 1921. 1. 17.)
	4. 부인의 내직 필요. 빈한함을 원망하지 말고 당신들이 부업에 힘쓰시오. (<매일신보>, 1921. 1. 20.)
	5. 위생에 대한 주의. 위생은 인생의 가장 큰 욕망인 건강의 원소인 것을 알라. (<매일신보>, 1921. 1. 23.)
	6. 교제에 무각한 부인. 교제는 언어에 큰 관계가 있다. 아내에게도 좋은 말을 쓰라. (<매일신보>, 1921. 1. 29.)
	7. 금일 여자계의 악풍조와 정신적 개량에 주의. 어쨌든 지질소하고 담박하게 여자다운 여자 태도를 내여라. (<매일신보>, 1921. 1. 31.)
	8. 아동의 유희는 무상한 자연교육. 아동을 두신 어머니는 유희가 큰 관계가 있는 것을 알라. (<매일신보>, 1921. 2. 4.)
	9. 종교에 대한 새 신앙. 참 신앙이라 하는 것은 이후 천당이나 극락에 가는 것보다 오직 착한 일을 하자는 것이다. (<매일신보>, 1921. 2. 5.)
	10. 금년에는 소원성취 하시오. (<매일신보>, 1921. 2. 8.)
	11. 조혼의 악습을 타파. 사회의 발전을 생각하려면 이 조혼제부터 해결하라. (<매일신보>, 1921. 2. 15.)
	12. 일반 가정에서 행하는 음식물 증답에 관한 주의. 음식물은 조금 잘못 주면 도리어 악감정을 사는 것이오. (<매일신보>, 1921. 2. 17.)
	13. 부정당한 희망을 하는 시모의 반성을 촉함. 동시에 시누이되는 사람들도 간악한 행동을 버리시오. (<매일신보>, 1921. 2. 18.)
	14. 낭유하는 남자의 회개는 부인의 충고에 있음. 우리 부인들은 우선 기생들의 회장을 본받지 마시오. (<매일신보>, 1921. 2. 20.)
	15. 결발에 대한 개량. 부인의 머리치장에 대하여 (<매일신보>, 1921. 2. 26.)
	16. 매미 없는 조선가정 (<매일신보>, 1921. 2. 28.)
	17. 자유와 개방적 생활. 오늘날은 남자만 의뢰 말고 각기 자유롭게 활동해야 (<매일신보>, 1921. 3. 4.)
	18. 노복 사용의 요소. 일반 가정에서 하인을 부터 쓰더라도 잘 쓰도록 해야 (<매일신보>, 1921. 3. 7.)
	19. 가화만사성. 평화는 성공하는 요소이다. 오늘날 계급타파가 급선무 (<매일신보>, 1921. 3. 14.)
	20. 부부간 칭호 문제. 내외간에 서로 부르는 칭호가 없는 것은 참으로 유감 (<매일신보>, 1921. 3. 26.)
	21. 친구절충주의. 혼례식은 이렇게 함이 좋아 (<매일신보>, 1921. 4. 25.)
강동위	1. 중국의 쇠락은 사기 부진 때문임을 논함 (<지신보> 32호, 1897. 9. 1.)
	2. 여학이폐설 (<지신보> 52호, 1898. 3. 21.)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각경과 강동위가 발표한 신문기사 가운데 여성관을 반영한 부분을 중심으로 두 여성기자의 여성관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두 여성기자의 신문기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귀납적 방법을 통해 여성관을 여성역할관, 여성교육관, 남녀평등관, 사회문화관 등 4가지 층위로 구분했다. 첫째, 여성역할관은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말한다. 둘째, 여성교육관은 여성이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관한 것이다. 셋째, 남녀평등관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해야 한다는 관점을 다룬 내용을 말한다. 넷째, 사회문화관은 당시의 사회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 이것이 사회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두 여성기자의 성장과정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강조하는 여성관이 어떤 배경 속에서 발현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 IV. 연구결과

### 1. 한국 최초의 여성기자 이각경의 여성관

#### 1) 이각경의 여성역할관

##### (1) 가정에서의 여성역할관

이각경은 가정에서의 여성역할관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각경은 인생은 못생긴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좋고, 사악한 것보다 착한 것이 좋고, 가난보다는 풍요로운 것이 인간성이라고 생각한다. 이각경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가난과 풍요라고 생각했고, 누구나 가난을 몰아내고 만족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살 방법을 고민했지만, 때로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자, 조선 부인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자신의 운명을 탓했다. 이각경은 조선부인들이 가정일을 하인들에게 맡긴 채 사치에 몰두하면서 가난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며, 부업을 통해 가정은 물론 국가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에 글에서는 가정 내 경제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잘 드러나 있다.

옛적에는 천자도 봄이 되면 밭과 논을 갈고 황후도 손수 길쌈을 한 일이 있다하지 않는가. 여러 부인께서는 수입이 적다하지 말고 밀봉 같은 것이라든지 직조 같은 것이라도 부업으로 열심히 하면 막대한 금전이 되는 것이다. 옛적 암매한 시대의 사상은 하루속히 버리고 아무쪼록 편안히 놀기를 주장하지 말고 노력하기를 주장하면 풍부는 자연히 올 줄로 생각한다. (<매일신보>, 1921. 1. 20)

또한 이각경은 조선 여자의 발전을 위해 조선 여자의 악습을 타파하고 나쁜 행동을 바로잡고 선한 풍조를 내세우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각경은 조선부인 중에는 비열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여자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남자도 비열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역시 여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각경은 누구나 척박한 삶보다 풍요로운 삶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스스로 부(富)를 모아 풍족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남을 쥐어짜서 부를 얻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것이다. 이

각경은 가정 내에서 특히 시부모와 시누이 등 흔히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부인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각경은 재산과 같은 경제적 부를 기준으로 며느리를 미워하거나 시누이가 올케를 험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식하고 상식 있는 아담한 부인”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며느리 친정에서는 의복이든지 음식 같은 것을 몇 벌씩 지어 보내야 그 며느리에 대해 학대가 덜하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유죄 무죄 간에 며느리에게 대해 날이 갈수록 점점 학대가 심해 결과에는 부부의 애정까지라도 멀어지게 해 가지고 친가로 가게 하는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 (중략) 이상 말한 것은 전혀 무식한 부인들의 행동이고 유식하고 상식 있는 아담한 부인은 결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줄로 생각한다. (<매일신보>, 1921. 2. 18)

이각경은 가족 화목의 핵심은 여성의 생각과 역할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각경은 어떤 가정이든 부부 외에 자녀, 자손이나 하인 모두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사는 것이 조화로운 가정이다. 그러나 부부가 먼저 조화롭게 살아야 그 자손과 하인이 이 집안의 주인을 따라 평화 즉 조화로운 가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부인들도 다 아는 이치이다. 화목한 가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순종적인 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편협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각경은 이에 더하여 문명의 발달과 치열한 생존 경쟁, 동서양의 사상이 혼재했던 당시에 조선 부인들은 남편의 생각과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남편의 말과 생각을 관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 남편의 사상과 사업을 이해할 만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하나 그러나 세계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입으로 전하는 말과 그 사상을 관찰해야 편지라든지 원고 하나는 무난히 작성해야겠으며 또는 음악 같은 것이라든지 손으로 만드는 편물 같은 것이며 석화 같은 것이라도 능히 그럴만 하여야 하겠다. (<매일신보>, 1921. 2. 28)

‘노복 사용의 요소’에서 이각경은 조선 부인들이 가정에서 하인을 대할 때 친절한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각경은 이 글에서 “북한 가정은 부자 집일 뿐 아니라 생활이 극히 어렵더라도 신분이 비슷한 가정이라면 하인이 있어야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하인을 대하는 관습이 일종의 ‘나쁜 풍습’이라고 비판했다. 이각경은 조선 부인들이 집안일은 물론

아이들 교육까지 하인에게 떠넘기고, 이것이 자녀의 장래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각경의 생각은 하인이나 남녀뿐만 아니라 오래 함께 살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다고 실제 조선 부인들은 하인을 자주 꾸짖고 구타하는 등 잔인하게 대했는데, 이러한 행태가 가정의 평화에 좋은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 부인들도 그와 같이 잔인하고 참혹한 대접을 하지 말고 잘못하는 일은 친절한 언사로 충고하며 선량한 점은 환영하여 줄 것 같으면 결코 하인으로 인해 가정의 평화를 손상한다던지 주인을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등 불쾌한 일이 없을 줄로 아는 바이다.  
(〈매일신보〉, 1921. 3. 7)

## (2) 사회에서의 여성역할관

이각경은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각경은 조선은 시대의 풍조에 순응하여 이전의 사물이나 풍습을 버리고 시대에 맞는 교육과 사상을 맞이하여야 하며, 설령 전체 시대의 풍조가 이전의 관습이나 사물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풍조를 받아들이고 이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풍속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사회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래의 내용은 당시 조선 여성들이 기방 기생들의 의복이나 외모를 따라 하려는 경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으며, 여성들 스스로 문명사회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머리 같은 것도 기름을 아주 많이 바를 수는 없겠지만 바르더라도 그 정도를 지나지 않도록 해 질소하고 담박하여야 하겠거늘 이와 반대로 무슨 향기가 있는 짓꾸 같은 것을 사용하는 외에도 여러 가지 찬란한 빈을 꽃고 다니며 그 외에도 목도리 같은 것은 청년 시대의 기혈이 방강한 시기인 즉 아니하고 다니더라도 무방하다 할 수 있는 중 부득이 하더라도 단아한 것으로 하여야 하겠는데 흔히 삼팔이나 무슨 찬란한 비단으로 하여 가지고 한 끝은 등에 있고 한 끝은 앞에 늘어지게 해 남 보기에 주사청루에 출입하는 창녀와 같이 하여 불량자에게 히야 까지나 무슨 좋지 못한 행동을 받게 되니 여사하고야 어찌 우리 여자 사회를 개혁할 수 있으며 진실하고 아담한 행동을 홀지라도 반대 자가 많은 이때인데 더욱이 여사한 비루하고 천착한 행동을 하고 어찌 이 반대자를 압도하고 문명한 여자계를 지도해 발전하겠는가. (〈매일신보〉, 1921. 1. 31)

이각경은 ‘개량’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나날이 발전하는 시대에 과거의 예절을 지키지도 않고 나날이 발전하는 풍조를 그대로 숭상하지 않고 있는 당시 여성들에게 개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각경은 요즘 조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대에 과거 시대의 예절만 지키고 새 시대를 숭상할 수도 없고, 어찌 됐든 오늘날과 비교하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크게 달라졌다고 본다. 조선 부인들이 깨달음과 자각을 통해 낡은 사상을 개량해야 세상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각경은 조선 부인들이 사상 개량을 통해 자신의 지혜와 담력을 통해 사회에서 잃었던 부인의 지위를 회복하고 일상의 무지몽매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기자는 이 문제에 취해야 대략 논란해 보고자 하는 것이나 여기 한 가지 말해두지 않을 못할 것이 있으니 개량을 주장하기 전에 보수라 하는 과거사 중에 좋은 것을 어디까지 보존해 지켜가야 하겠다는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를 창도함은 아니다. 본래 개량의 완전함은 보수의 고수에 대한 근본이 있는 후 이를 말함이다. (<매일신보>, 1921. 1. 11)

지금 우리 부인들이 이를 비교해 보고 깨달아 욕심내는 것은 전혀 침착한 점에 대해 안심한 것이 있으니 다름 아니라 이웃집 부인 중에 금비녀나 비취가락지나 혹 새로 난 비단으로 의복을 했으면 그것을 보고 나와 비교해 남만 못하다하고 그 남편 되는 이만 졸라서 외양을 꾸밀 마음이 간절할 줄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천착한 점에는 매우 비교심이 많기에 우리 부인께서는 유조한 좋은 일에는 전진해 가는 것은 없고 밤낮 한 모양으로 있다. 그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쓸데없는 일에는 매우 진취되는 모양이다. 어서 하루빨리 깨달은 후에 세상 일이 모두 이전과 오늘이 다른 것을 가르친다든지 남편을 섬기는데 라든지 외인과 접촉하는데 라든지 모두 슬기 있고 배포 있게 해가며 또 이외에 남는 힘과 의사가 있으면 세상을 위해 적당히 일을 하는 것도 또한 재미있으며 여러 부인이 이왕 사회에서 떨어졌던 지위도 회복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일상 몽매한 처지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정해진 이치라 하겠다. (<매일신보>, 1921. 1. 11)

이각경은 부인의 예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선물을 줄 때 받은 선물보다 조금 더 비싼 선물을 주는 것이 선물하는 사람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조선 여성들이 그러하지 못한 데 대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선 부인들은 기차에 탔을 때 자리를 점유하기 위해 밀치거나 음식을 먹을 때 떠들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사생활에 대해 거리낌 없이 질문한다며 지적했다. 이처럼 기차나 식당 등 사회 영역

에서 조선 부인들이 예절을 잘 지키지 않음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조선 부인들께서는 남이 나에게 일원 어치를 보내면 나는 대신 보낼 때에는 칠십 전이나 팔십 전 어치를 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과 같이 일원 어치를 보내는 일이 없으며 또 그 외에도 남에게 정을 표하기 위해 무슨 물품을 보낼 때에는 값이 좀 들더라도 상등 물품을 사서 보내야 비로소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보내는 자기의 성의를 나타낼 수 있다. (<매일신보>, 1921. 1. 17)

제일 전차라든지 기차 같은 것을 탈 때에 보면 서로 먼저 앉으려고 밀어 던지며 조금 심하면 싸움까지 하니 진실로 한심하기 한량없다. 이러한 일은 남자들도 많지만 이보다도 우리 부인들이 더 심하다. 또 우리 부인들을 보면 이러한 전차라든지 기차 같은데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비켜주며 앉으라고 하여도 고맙다는 답사도 없이 모르는 체하고 앉을 뿐이니 이를 보는 외국 사람들은 그 무례함에 대해 놀라기를 금하지 않게 된다. 이는 부인들께서 무슨 악의를 가지고 그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녀 간 언어를 통하지 않는 악한 습관이 있으므로 그러하지만 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야 어찌 무례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매일신보>, 1921. 2. 17)

중빈이 모인 곳인 즉 음식 같은 것을 먹을 때라도 조용히 서로 권해 가며 체면을 해서 잡수셔야 예의가 있다고 하겠는데 이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서로 많이 까먹기 위하여 떠들고 말다툼까지 하고 심한 부인은 남보다 먼저 잡수시고 또 달라고 해 수건 같은데다가 싸가지고 가니 자기가 먹지 않고 싸가지고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자기 것은 남보다 먼저 먹고 아니 먹은 모양으로 또 달라 해서 싸가지고 가는 이가 많다. (<매일신보>, 1921. 2. 17)

예의동방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으며 시대에 적당한 여자가 되어 우리 사회를 문명한 곳으로 나아가게 할가 원하니 이와 같은 무례한 일을 속히 고치고 또한 우리의 고유한 예의는 어디까지든지 보유하는 동시에 자연법칙인 예의를 더욱 선량하게 이행하기를 바란다. (<매일신보>, 1921. 2. 17)

사회적으로는 조선의 남성들이 화류계에 탐닉했기 때문에 부인들은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화류계의 나쁜 풍조를 따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각경은 이러한 나쁜 풍조를 비판하면서 조선 부인들이 현모양처로서의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 부인들의 지혜와 고상한 인격으로 남편을 인도하고 훈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부인들 중에는 요사한 창기나 예기라면 역시 무슨 고상한 인물로 인증하고 부인다운 태도는 오히려 재미없이 생각하고 의복이든지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기생의 태도를 본받으려 하는 부인을 종종 본다. 이러하고는 도저히 이상 말한 것과 같이 방탕한 남자들을 회개 시킬 수 없으니 즉 우리 부인들께서는 기생과 같이 천한 행동을 본받지 말고 현처다운 아담한 태도를 가져 아무쪼록 거리에서라도 기생과 부인들과는 그 태도라도 의복일지라도 전혀 다르게 하지 아니하면 기생이나 예기보다 영특하고 신성한 인물의 가치가 무엇으로 나타나겠는가. 이상 말한 것은 다름 아니라 요새 청년들은 너무 비루하고 난잡한 행동만 하기에 우리 부인들께서는 요사한 악마 굴에서 있지 않도록 충고해라. (<매일신보>, 1921. 2. 20)

## 2) 이각경의 여성교육관

이각경은 아동 교육에 대한 문제 또한 강조했다. 다음의 글에서 나타나듯이 이각경은 조선의 부인들이 아동을 교육하는 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일정한 틀에 갇혀 자유를 배제하는 교육이 아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이각경은 조선 부인들이 자녀교육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각경은 게임을 더 시켜야 한다는 것은 진흙 같은 것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우호적인 범위에서 놀게 한다는 것. 이를 통해 “북한 어린이들이 외국 어린이들에 비해 나약하고 게으르며 심리상태도 좋지 않고 찌칙한 면이 없다”며 “북한 어린이들이 갈 길이 멀고 할 일도 많다”며 “사회적인 책임을 지려면 북한 부인이 자녀 교육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든 유희 중의 한 예를 들어 말한 것이나 이 외에도 나무나 돌 같은 것으로 여러 가지 물건과 돌을 쌓아서 집 같은 것을 만들어가며 아무쪼록 잘 만들어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즉 자연적 교육법이라 하겠다. 이 뿐만 아니라 인생에 건강이라 하는 것은 운동에 있다하는데 아동들에게 운동은 유희에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는 유쾌한 장난을 하도록 권고해야 되겠다. 그러함으로 유치원을 볼지라도 아동에게 흙 같은 것을 주어서 장난하게 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난감을 주어서 재미스러운 운동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은 근일 아동 학자들의 일대 각성이라 하겠으며 또한 유치원에서 아동에 대한 유희 교육은 그 효력이 적지 않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 조선에서는 아동들이 여사한 흙장난 같은 것을 한다든지 활발하게 친구들과 뛰어가며 유희를 할 것 같으면 손과 얼굴이 검어지며 의복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크게 금지하니 이는 전혀 아동에 대한 양호한 교육이라 할 수 없다. (<매일신보>, 1921. 1. 14)

이각경은 개념적 차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한 예로 조선 부인들이 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고 겉모습만 깔끔하게 유지하며, 집안 청소에도 있어서도 청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각경은 여성들이 위생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각경은 조선 부인들은 매일 청소하지만 보통 남들이 볼 수 있는 방이나 마루 이런 곳만 청소하고 남들이 보기 힘든 다락방이나 창고 같은 곳은 먼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위생으로서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몸을 위해 생활 속에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위생이라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실행하는 것이지만은 타인보다 먼저 내 몸을 위해야 아무쪼록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건강한 신체로 지내고자 해야 위생을 하는 것인데 우리 조선 부인들께서는 위생보다도 타인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집안 청소도 하고 의복도 갈아입는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청소할 줄을 모르니 어찌 위생을 아는 부인이라 하겠는가. (<매일신보>, 1921. 1. 23)

여름이 되면 더러운 먼지나 쓰레기가 부패해서 그곳으로부터 병균이 발생되어 일가정을 멸망하며 좀 심하게 말하면 한동네를 멸망하게 되기 쉬우니 부인들께서는 무엇보다도 더욱 주의해야 할 일은 이 위생이라 하겠다. (<매일신보>, 1921. 1. 23)

이각경은 또한 일부 조선 부인들이 사교적인 자리에서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사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각경은 조선 부인들이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사업과 지위에 따라 재미있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각경은 가능한 한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손님이 찾아오면 복한 부인들은 보통 생활고를 얘기하거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내용이나 시부모님, 며느리들의 뒷담화,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들으면 짜증을 내거나 이런 식의 사회생활은 실패이다. 또한 어린이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고 배우며, 지성 교육을 해야 유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대화 예의가 매우 중요함에도 조선 부인들의 사용 언어가 그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아동이 부모의 언어습관을 배우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부모가 친절하고 고상하고 우아한 말을 사용하여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 부인들은 손님이 찾아가면 그 손님의 마음을 만족할 만한 담화는 안하고 보통 하는 담화들을 들어보면 생활 상 곤란한 이야기나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잘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담화가 아니면 시부모의 흉이나 며느리 흉이나 유식하고 아담스러운 부인될 담화는 하나도 없으니 이와 같은 상식 없고 무취미한 담화를 해서 모처럼 왔던 손님은 듣는 게 실증이 나서 주인은 담화를 하는데 듣는 손님은 즐거나 하품과 기지개를 하게 된다. 이러면 진실로 사교에 실패를 할 것이다. (<매일신보>, 1921. 1. 29)

우리 부인들께서 아동에게 사용하는 언사는 될 수 있는 대로 고상하고 아담한 말을 들려주어야 하겠으며 친구한테 사용하는 담화라도 경어를 써야 하겠다. (<매일신보>, 1921. 1. 29)

이각경의 여성교육관은 가정과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각경은 오늘날 조선 인민은 여전히 각성하지 못하고 반듯하게 앉아 있고, 과복은 못 해도 엄살을 부리는 양반이 많으며, 이런 경우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심할 것이며, 남자는 사교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상은 점차 사라지겠지만, 여자는 집안에만 있을 뿐 사회의 변천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사상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다음의 글에서는 교육을 통한 지식 습득이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이각경은 조선 부인들이 이런 계급주의 사상을 빨리 버리고, 문벌의 좋고 나쁨에 따라 남을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손들이 남보다 훌륭한 인격을 쌓도록 하려면 노동을 많이 시키고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식여화에 자기 신분의 귀천이 있는 것이나 또한 그 지식이라 하여도 정도가 있으니 본 기자가 주장하는 지식이라 하는 것은 박사나 학사 등 지위에는 못 이르지라도 보통 학식은 남녀를 물론하고 있어야 한다. 제일 쉬운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가정 재산이 풍부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보관할 수가 있으나 만일 무식하면 암매한 시대에 자기의 재산까지라도 눈뜨고 도적을 맞게 될 것이로다. 어떠한 방면으로 보든지 지식이라 하는 것은 없지 못할 것인 즉 이상 말한 것과 같이 서로 형제 같은 불쌍한 동포를 사랑하고 의지해야 하 목하며 학문에 힘쓰기를 바란다. (<매일신보>, 1921. 3. 14)

### 3) 이각경의 남녀평등관

남녀평등에 측면에서 이각경은 조선 여성의 지위가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유교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조선시대 가부장적 제도에서 기인한다. 이에 따라 조선 남성들은 여성을 무시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관습을 타파하기 위해 이각경은 여성들에게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 조선 남자들은 아직까지도 여자라 하면 무정신 무능력 무가치 무이해하는 걸로만 알고 절대의 금고를 할 뿐 아니라 여자된 자체로 말할지라도 스스로 자기들은 이 사회에서는 인생된 권리가 없고 다만 남자의 기생물로만 알고 자포자기적의 자태를 하게 되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매일신보>, 1921. 3. 4)

우리 조선 부인들은 아직도 깊이 든 잠을 깨지 못하고 한 가정에서도 자유와 개방적 생활을 못하고 대문 밖이 어떤지 자기가 있는 사랑방이 어떠한지도 모르게 되어 단지 안방 구석에 깊이 갇혀져 있다. (<매일신보>, 1921. 3. 4)

우리 조선 부인들도 남의 나라 여자들과 같이 남에게 의뢰생활을 하지 말고 자유와 개방적 생활을 하자는 말이다. (<매일신보>, 1921. 3. 4)

하나의 예로, 조선시대의 부부들은 서로 부르는 명칭이 없었는데, 이각경은 이를 당시 사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남녀평등에 대한 개념 부재가 낳은 결과라 보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각경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호칭 사용을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남녀평등관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구성원이자 주체로서의 호명이 남녀 구분 없이 동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각경은 이러한 인식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조선 부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깨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 가정에서는 그 가정의 주부되는 아내가 남편을 대하여서는 직접으로 부르는 때에는 영감이니 나리니 서방님이니 하는 완전치 못하나마 부르는 칭호가 있지만은 그 남편 되는 이가 아내를 부를 때에는 별로 지당한 명사가 없이 보통 누구에게든지 사용하는 (여보시오)라는 것 외에는 없으므로 흔히 그 아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앉았을 때에 (여보시오)하고 그 아내를 부르면 정말 대답할 아내는 대답 안 하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하게 되어 일대 희극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실례되는 일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는 외국 사람들과 같이 조선 여자들도 이름을 따라서 무슨 특별한 지정 명사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그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명사에 대하여서도 이상 말한 것과 같이 영

감이니 서방님이니 나리니 하는 일이 있지만은 이것도 완전한 명사라고는 할 수 없다.  
(〈매일신보〉, 1921. 3. 26)

#### 4) 이각경의 사회문화관

이각경은 종교에 관한 글에서 조선 부인의 우매한 종교 관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이각경은 조선 여성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여성들의 인식과 관점에 있어 자율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조선 부인들께서는 종교라 하면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불에게 경을 두는 것으로만 알고 그 우상에게 가서 일심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하니 이와 같은 목적의 신불이 무슨 능력으로 신성한 인성의 선악을 구별하고 복과 죄를 줄 수 있다. (〈매일신보〉, 1921. 2. 5)

본 기자가 주장하는 신종교의 신앙이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후에 극락과 천당에서 종교적 도덕심으로 서로 서로 도덕과 종교로부터 나온 선량한 풍속을 유지해야 우리 인성에 제정한 법률 외에 도덕이라는 법률이 있어야 우리 인성사회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므로 불가불 종교라 하는 것은 신앙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이른바 신종교라 하겠다. 이 외에도 우리 부인들께서는 종교를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부처에게만 모든 일을 도와달라고 의뢰했지만 이로부터 신앙할 신종교의 신앙은 천당이나 지옥이 다 자기의 마음에 있다는 것으로 신앙해야 하겠다. (〈매일신보〉, 1921. 2. 5)

이각경은 또한 조선의 새해 풍속문화에 대해서도 낡은 사상을 개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각경은 조선 부인들이 새해에는 가정, 사교예절, 아동교육에서 새로운 변화를 겪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선 부인들의 근대적 의식 고취가 가정은 물론 사회의 근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보았음을 보여준다.

이것도 속히 개량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나 우리 부인들께서는 이 음력 일월을 사용하므로 이 신년에 대해 잠간 말하고자 한다. 일월 일일이라 하는 것은 즉 과거 일년 간에 대한 우수사려(忧愁思虑)를 잊어버리고 금년부터는 새로운 기쁨을 더하고자하는 그해의 일월 월일이므로 이날은 옷도 새 옷을 입고 음식도 새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다. (〈매일신보〉, 1921. 2. 8)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형식에 대한 것을 새로이 할지라도 금년 일 년에 대한 사업은 마음

과 습관을 개량치 않고는 욕망하는 바와 같이 새로워 질 것이 아닌 즉 금년 사업을 새로이 성공할 요소되는 마음과 습관을 새로이 하여야 이성 따라서 우리의 사업에 대한 성공도 욕망대로 새로워 질 것이다. (<매일신보>, 1921. 2. 8)

가정에서는 상봉하술(上俸下率)하여 봉제사(奉祭祀) 접빈객(接賓客) 하는 것으로부터 심지어 아동 교육까지라도 시대에 적당 하도록 행하며 사회에 나와서는 교제라든지 사회 공동에 대한 공덕심 같은 것이라도 모두 새로운 마음과 행동으로 사물에 접촉하면 작년보다 금년은 자연히 성공과 영화가 있을 줄로 믿으니 원컨대 우리 부인들께서는 본 기자가 이상에 말한 것이 비록 용렬하다고 하겠지만 이와 같이 이행해서 금년부터는 부모에게 효행을 하고 한 가문을 화목하게 하며 자손이 없는 이는 유자생녀(有子生女)하시고 또 남취여가(男娶女嫁)하며 아무쪼록 사업에 열심히 해 금전도 많이 모아서 소원 성취하기를 바란다. (<매일신보>, 1921. 2. 8)

이각경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관습의 폐해에 대해서도 사회적 발언을 이어나갔다. 예를 들어, 조혼이 부부의 감정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적 성장에도 좋지 않다며 조혼에 대한 해악을 비판했다.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이어 내려오는 관습이라 하더라도 잘못되거나 사회에 해가 되는 관습이라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진보적인 생각이 담겨 있다.

조혼을 하면 신체가 쇠약하게 되어 충분한 활동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조혼을 하면 장성하여서는 부부간 서로 불합하여 지는 일이 많으므로 조선 가정에서는 종종 이렇게 소박하는 일이 있는데 일다 사정을 인해 여사한 경우를 당하는 일도 있지만 안 보통 남자보다 나이 많은 여자와 십이 삼세나 그렇지 않으면 십오 육세에 조혼을 하므로 자연부부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치 못하는 시대에 결혼을 해 부부의 애정은 없이 지내는 중 장구한 세월을 지내가자면 서로 결점이 있을 것은 누구든지 면치 못하는 것인데. (<매일신보>, 1921. 2. 15)

조혼한 것과 장성한 후 결혼한 관계를 분별하라는 말이다. 자녀 간 누구를 물론하고 장성한 후 결혼을 하여야 하겠으며 또는 조혼을 하면 기억력이 감하여 질뿐만 아니라 다소간 애정이라는 것을 안다하게 되면 자연히 두뇌가 복잡하게 되므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인 즉 십오 육 세에 공부할 시기인데 이 조혼으로 인하여 공부를 못하게 되니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매일신보>, 1921. 2. 15)

## 2. 중국 최초 여성기자 강동위의 여성관

### 1) 강동위의 여성역할관

#### (1) 가정에서의 여성역할관

강동위는 ‘여학이폐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성역할관에 대해 드러내고 있다. 강동위는 무릇 사물은 모두 대외적으로 음양 양면을 나타내고, 빛은 흑백, 모양은 방형과 원형, 질은 유체와 고체, 힘은 흡입력과 추력이 있으며 수에는 기수와 짝수가 있다. 동물은 암수와 수컷이 있다고 한다. 강동위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고 천한 높낮이의 구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강동위는 특히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강동위는 출생 후 아기가 백지장처럼 순수한 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성품은 어머니만이 그 개성에 따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교육이 자녀의 덕목과 품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피력했다.

태어난 후 아기는 천성이 백지장처럼 순수하다. 그들의 성품은 오직 어머니만이 그 개성에 따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더구나 아이들은 엄마 앞에서는 제멋대로 굴지만 아버지를 두려워해 아버지로부터 받는 영향은 적고 어머니로부터 배우는 것이 많다. 어린 때 배운 내용은 자라난 후의 덕목과 직결된다. 성인이 된 후의 품행이 좋은 지는 유년의 출발이 좋은지에 달려 있다. (<지신보>, 1898. 3. 21, 52호)

#### (2) 사회에서의 여성역할관

강동위는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세심하고 인내심이 강한 여성의 특성이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부합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강동위는 평소에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남녀의 구별이 지혜롭고 어리석은 구별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늘 생각하고 현명한 아내도 어리석은 남편보다, 현명한 여관도 무모한 남자보다 못한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인재의 좋고 나쁨은 무엇보다도 유년기의 학습이다. 서양에서 계몽하는 교사는 대부분 여

성인데, 여교사는 세심하고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현덕이 없는 어머니가 유리하다. (<지신보>, 1898. 3. 21, 52호)

## 2) 강동위의 여성교육관

강동위는 이 글에서 서구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번영은 모두 교육에 그 원천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교육은 도덕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강동위는 여성들이 지식을 배울 경우, 자신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을 배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문명이거나야만은 주로 후천적 교육에서 결정된다. 한 나라는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의 절반으로 구성돼 있고, 한 가정은 남성과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이 함께 살고 있다.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나라가 어지럽지 않은데 뭘 기다립니까? (<지신보>, 1898. 3. 21, 52호)

그래서 여학을 여는 것이야말로 국가 진흥의 기본이고, 그 정도로 반듯하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지신보>, 1898. 3. 21, 52호)

여자는 교육을 받으면 효성이지극하면 부모를 섬기고, 현덕이 있으면 남편을 섬기고, 정의가 자식을 교육한다. 여성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신입지(修身立之)의 말과 행동은 현성의 도리에 어긋나고 국가의 법도에 어긋난다. (<지신보>, 1898. 3. 21, 52호)

지금 사회 풍조를 바꾸고 올바른 방법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여성 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신보>, 1898. 3. 21, 52호)

## 3) 강동위의 남녀평등관

강동위는 중국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의 기사에서 살펴보면,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남자아이의 행동장애는 물론 지식장애에 대해서는 문제로 여기고 있지만,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강동위는 페르시아와 인도,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교육적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옹알이는 발음이 안되고 까치발을 들고 걸음을 두려워하면 부모는 아이의 장애를 걱정한다. 말이 행동장애가 있는 아이는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한다. 여자아이는 학문적 지식장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왜입니까?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포기해야 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까? 도덕적인 납치일 뿐이다. (<지신보>, 1898. 3. 21, 52호)

페르시아인과 인도인은 나라마다 여자가 있어 감히 볼 수 없다고 생각했고, 미국은 어느 집안에 여자가 많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축하했다. 똑같은 여자인데 태도가 이렇게 다르다. 나는 처음으로 나라마다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따로 없는 것도 아니고, 구미 각국의 강성은 고대를 훨씬 능가한다. 이들 국가의 제도적 완비, 인재양성, 지적 표현, 풍격의 돈독함, 기백의 웅장함, 국가 제패는 모두 서구국가들이 교육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서구의 교육제도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모두 여덟 살에 학교에 입학시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부모를 처벌하는 것이다. (<지신보>, 1898. 3. 21, 52호)

#### 4) 강동위의 사회문화관

강동위는 ‘중국의 쇠락은 사기 부진 때문임을 논함’이라는 글에서 국가와 사회의 강대함에 대한 지식인의 역할에 주목했다. 인재 양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여기고 당시 중국인들의 지식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위는 같은 시기 중국이 겪은 고난의 근원이 중국인들이 교육을 덜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우매한 낡은 사상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에 반해 지식인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지식인이 계승한 중국의 유교 사상은 구우일모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 지식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성현 사상을 대대로 물려받아 내려오면서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는데 중국이 그렇게 빈약한 것을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한때 혼자 있으면서 이런 현상의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우리의 전함이 튼튼하지 않아서일까? 우리의 병기가 예리하지 못해서일까?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국토가 좁아서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것일까? 또 아니면 물산이 희박하고 나빠서 국민의 생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일까? 또는 우리 국민이 무지몽매하여 교화를 받아들이지 않아 문명 고국에 걸맞지 않는 것일까? 이 모든 추

측이 틀렸다. 진짜 원인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의 기개가 분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식인의 기개가 분발되지 않고 안일을 추구하며 자신만 보전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의욕이 부족하여 결국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게 되었다. (<지신보>, 1897. 9. 1, 32호)

강동위는 선비들이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가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며, 지식인들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강동위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지식인의 기세가 약화되는 현상을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이 사회변화의 근간이 되며, 특히 지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강동위의 철학을 보여준다.

지식인의 기개가 분발되지 않고 안일을 추구하며 자신만 보전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의욕이 부족하여 결국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게 되었다. (<지신보>, 1897.9.1, 32호)

우리를 야만인처럼 보고 우리가 교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나라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지식인이라 할 수 없다. 지식인은 자연을 우러러보고 종교를 굽어보아야 하며 고금을 알고 중국과 외국의 정세를 수평적으로 살피고 성현의 학문으로 천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지신보>, 1897. 9. 1, 32호)

인재야말로 나라의 근본이고 지식인은 인재의 원천인바 지식인이 많으면 나라가 번성하고 지식인이 적으면 나라가 재앙을 맞게 된다. (<지신보>, 1897. 9. 1, 32호)

### 3. 한·중 최초 여성기자들 이각경과 강동위의 여성관 비교

#### 1) 이각경과 강동위 여성관의 공통점

이각경과 강동위의 여성관은 여성역할관, 여성교육관, 남녀평등관에서 공통점을 보여주었다. 이각경과 강동위의 기사에서는 ‘개량’, ‘선진’ 등과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이각경은 이 글에 이렇게 썼다. 부인의 개량이라 하면 말이 너무 막연하며 또 이 개량이라 하는 것이 타방면으로 요구할 것도 있겠으며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주장을 할 것도 있겠으며 혹은 부인의 처지를 따라 말할 수도 있으니 즉 도시의 부인이 다르고 지방 농가의 부인이 다르고 또는 노부의 젊은 부인을 따라 각기 개량할 점이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개량이라 하는 것은 요구하는 자타

의 관계를 물론 하고 늙고 젊은 관계에 불과하며 경향의 구별을 논란치 아니하고 다만 지금 우리 조선은 날고 달로 변해가는 이 시대를 당하여 지난 시대의 범절만 지킬 수도 없고 또 나날이 달려가는 풍조를 다 숭상할 수도 없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오늘이 이전과 비교하면 정신상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든지 물질상으로 인한 일이든지 우리의 주위 사정이 심히 변한 것은 누구든지 그렇지 않다고 반대는 못 하겠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런, 즉 여기에서 개량이라 하는 말이 생기며 또 그 필요함을 감동함을 생기는 고로 이 기자는 이 문제에 취해야 대략 논란해 보고자 하는 것이나 여기 한 가지 말해두지 않지 못할 것이 있으니, 개량을 주장하기 전에 보수라 하는 과거사중에 좋은 것을 어디까지 보존해 지켜가야 하겠다는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를 창도함은 아니다. 본래 개량의 완전함은 보수의 고수에 대한 근본이 있고 난 뒤를 말함이다. 즉 이것을 오해하면 불가할 줄 생각한다. 여기서부터 우리 조선 일반 부인으로서 이 시대에 따라 고치지 아니하지 못할 일을 들어 논란하려고 하니 쓰는 여러 기명이며 집으로 보아도 이층이니 벽돌집이니 하는 화려하고 굉장한 것이 이로 세일 수 없이 있으나 다 사람마다 형세 없어 뜻과 같이할 수는 없으려니와 누가 만류하거나 금지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신년벽두를 제하여. 조선 가정의 주부께 >, 1921. 1. 11).

또한 강동위는 이 글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방희는 사서를 계속 쓸 수 있고, 복녀는 경서를 전할 수 있고, 위모는 자강학을 가르칠 수 있으며, 송나라의 옛사람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고대의 현녀를 볼 수 있으며, 모두 경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재앙을 단언할 수 있다(那么班姬能续写史书, 伏女能传经书, 韦母能课子讲学, 二宋继承古人传授教义, 看古代的贤女, 都能根据经书中的教义来决断祸事灾难). 책을 읽지 않았다면 누가 이런 이름을 역사에 남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서양 각국을 공부해서 고금을 통달해야 한다. 이는 조선 여성들이 봉건사회의 낙후된 사상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수용해야 할 것을 강조했음을 보여준다. 즉, 당시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지식을 배워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여학이페설> 52호, 1898. 3. 21.)

이 외에도 이각경과 강동위는 특히 여성교육과 아동교육에 주목했다. 이들은 교육이 사회 안정의 근본이며, 국가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성교육과 아동교육이 매우 시급하다고 여겼다. 이각경은 이 글에 이렇게 썼다. 이뿐만 아니라 인생에 건강이라 하는 것은 운동에 있따하는데 아동들에게 운동은 유희에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때로는 유쾌한 장난을 하도록 권고해야 하겠다. 그러함으

로 유치원을 불지라도 아동에게 흠 같은 것을 주어서 장난하게 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난감을 주어서 재미스러운 운동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은 근일 아동 학자들의 일대 각성이라 하겠으며 또한 유치원에서 아동에 대한 유희 교육은 그 효력이 적지 않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조선부인들의 아동교육에 대해. 어린아이의 교육 방법은 이러합니다. 이를 깨달으시오>, 1921. 1. 14.).

또한 강동위는 이 글에 이렇게 썼다. 무릇 사물은 모두 대외적으로 음양 양면을 나타내고, 빛은 흑백, 모양은 방형과 원형, 질은 유체와 고체, 힘은 흡입력과 추력이 있으며 수에는 기수와 짝수가 있다. 동물은 암수와 수컷이 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 천한 높낮이의 구분이 없다. 사람의 성별은 다르지만, 사람의 도리는 같다. 그 구학하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배운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말과 행동은 태어나자마자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 후천적으로 배운다. 그래서 아기 때는 걷는 법, 키가 한 척이 넘는 아이는 어른을 부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웅알 이는 발음이 안 되고 까치발을 들고 걸음을 두려워하면 부모는 아이의 장애를 걱정한다. 말이 행동에 장애가 있는 아이는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한다. 여자아이는 학문적 지식 장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왜일까? 여자는 사람이 아닐까?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포기해야 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까? 도덕적인 납치일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명이나 야만은 주로 후천적 교육에서 결정된다. 한 나라는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의 절반으로 구성돼 있고, 한 가정은 남성과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이 함께 살고 있다.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나라가 어지럽지 않은데 뭘 기다리는가?(<여학이폐설> 52호, 1898. 3. 21.)

이각경과 강동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유로운 교육 실천이 중요하고, 어머니로서 혹은 교사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교육이 받아야 가정은 물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2) 이각경과 강동위 여성관의 차이점

이각경과 강동위의 여성관은 남녀 평등관과 사회 문화관에서 다소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남녀평등관에 있어 이각경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있어 남녀평등관을 강조한 반면, 강동위는 남성과 여성의 교육적 측면에서의 남녀평등관을 더 중요

하게 다뤘다. 예를 들어, 이각경은 이 글에 이렇게 썼다. 우리 여자는 양의동서를 물론하고 남자의 구속을 받아 왔으며 또한 남자들도 여자라 하는 것은 자기의 무슨 소유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예로만 알고 서양에서도 십팔 세기까지도 여자라 하는 것은 인구나 증가하는데 필요할 뿐이요 별로 이 사회에 대해서는 남자와 같이 직접으로는 조금도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았으니 이는 프랑스의 나폴레옹 대제 때 구수에서 인생의 자유는 자연의 정리며 민족의 본의라 해 자유의 참뜻 되는 공화적의 기초를 시작해 인생의 자유 사회계급이 평등을 주장한 그이지만 여자사회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도리어 절대적 구속을 하였으니 그의 항상 여자를 비평하는 말을 보면 여자는 남자의 정욕적 상대물이며 인종을 증가시키는데 지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 말을 볼지라도 서양에서도 십팔 세기나 십구 세기까지도 여자 사회는 암담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십팔 구 세기의 프랑스의 나란 부인이 여자의 자유를 주장하고 여자도 사회에 대한 분자이며 국가에 대한 국민일 뿐이라 신체의 구조를 볼지라도 생식기의 구별이 다를 뿐이요 그 외의 구조는 남자와 다를 것이 없는 즉 그들의 사업도 남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의미 하에 남녀동등권을 주장해 이로부터 차차로 그 사상의 풍조는 구라파 여자 전체에 전파되어 금일에 와서는 백인종 여자 사회는 그들의 이상과 같이 이상화해 참 정권까지 얻은 나라가 있게 되었는데 우리 조선 남자들은 아직까지도 여자라 하면 무정신 무능력 무가치 무이해하는 걸로만 알고 절대적 금고를 할 뿐 아니라 여자된 자체로 말할지라도 스스로 자기들은 이 사회에서는 인생된 권리가 없고 다만 남자의 기생물로만 알고 자포자기적의 자태를 하게 되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자유와 개방적 생활. 오늘날은 남자만 의뢰 말고 각기 자유롭게 활동해야>, 1921. 3. 4.).

또한 강동위는 이 글에 이렇게 썼다. 사람은 먹고 마시고, 말과 행동은 태어나자마자 아는 것이 아니라, 모두 후천적으로 배운다. 그래서 아기 때는 걷는 법, 키가 한 척이 넘는 아이는 어른을 부르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웅알이는 발음이 안 되고 까치발을 들고 걸음을 두려워하면 부모는 아이의 장애를 걱정한다. 말이 행동작에 장애가 있는 아이는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한다. 여자아이는 학문적 지식장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포기해야 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일까? 도덕적인 납치일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명이나 야만은 주로 후천적 교육에서 결정된다. 한 나라는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의 절반으로 구성돼 있고, 한 가정은 남성과 교육을 받지 않은 여성이 함께 살고 있다.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는가?(<여학이폐설> 52호, 1898. 3. 21.)

다음으로 사회 문화관에 있어 이각경은 조혼, 결혼 등 악습으로 이해되는 사회문화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 악습을 타개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이에 반해 강동위는 당시 지식인들의 소극적이면서 사려 깊지 못한 태도로 인해 중국 사회가 쇠락했다며 지식인의 사회적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당시 중국이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는 이유가 지식인의 역할 부재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강동위의 기사에서는 당시 사회의 불안함과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낙후된 사상을 비판하는 데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 3) 이각경과 강동위 여성관의 형성 배경

이각경과 강동위의 여성관이 형성하는 데에는 개인의 가정환경과 교육환경을 통한 성장 과정, 그리고 신문사 기자로서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두 여성기자 모두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했다. 이각경의 아버지 이종호(李鍾浩)는 양반 신분으로 풍족한 재산을 갖고 있었다(정진석, 2002). 또한 강동위의 아버지 강유위는 당시 중국의 유명한 지식인이었다(劉煜程, 2015). 둘째, 두 여성기자 모두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유신 운동을 전개한 후 국가경제가 크게 발전했다. 이에 따라 당시 아시아 국가의 지식인들은 일본에서 새로운 사상과 신기술, 그리고 외국의 선진사상을 받아들였다. 이각경과 강동위 또한 일본에서의 유학 경험을 통해 여성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고 이를 언론활동을 통해 표현했다. 특히 이 두 여성기자들은 관찰과 사유를 통해 당시 여성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접근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성주의 사상을 형성했다. 즉, 이들은 교육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 수행, 여성의 사회적 지위 신장 등 여성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었다. 여기에는 선진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한 계몽적인 시선과 태도가 담겨 있다.

## V. 결론 및 논의

###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최초 여성 기자인 이각경와 강동위의 언론활동을 통해 이들이 어떤 여성관을 갖고 있었는지 여성역할관, 여성교육관, 남녀평등관, 사회문화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이각경의 역할관은 가정 역할관과 사회역할관 등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가정 역할관에서는 부인의 부업, 사교예절, 부인의 하인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 역할관에서는 사상의 개량, 사회적 예의에 태도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각경의 교육관에서는 아동교육, 가정교육을 중심으로 한 가정 내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녀평등관을 통해 여성이 남성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가정에서는 남성이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관에서는 종교와 조혼, 결혼풍습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동위의 여성 역할관은 먼저 가정 역할관에서는 자녀의 본보기로서 어머니의 역할, 사회 역할관에서는 여성의 세심한 성격을 발현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 여성교육관에서는 외국 사례를 들며 여성이 교육을 받으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녀평등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회 문화관에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각경와 강동위의 여성관 가운데 여성교육과 아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두 여성기자의 여성교육에 대한 주장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각경의 기사는 종교, 조혼 등과 같은 사회현상과 관습 등을 언급하는 등 강동위보다 다루는 범위가 더 넓었다. 이에 반해 강동위는 국가와 개인적 차원에서 여성 교육, 나아가 지식인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다뤘다.

이각경와 강동위는 한국과 중국 최초의 여성 기자로서 신문에 글을 게재함으로써 당시 여성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전달했다. 이들의 사상은 당시의 낙후된 사회환경으

로 인해 여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고 계몽적인 여성관을 드러냈다.

## 2. 연구의 의의

첫째,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근대사회에서 최초로 등장했던 여성 기자들의 언론 활동을 통해 그들이 어떤 여성관을 갖고 있었는지를 4가지 층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두 여성 기자의 언론 활동에 대해서는 다뤘으나 이들의 여성관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 두 여성 기자의 언론활동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여성기자들의 관심사는 당시의 사회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각경이 활동한 1920년 조선은 일제강점기였고, 강동위가 활동한 1897년 당시 중국 또한 외세에 의해 침략 당하던 시기였다. 사회정치의 변화와 서양의 선진사상이 유입되면서 계몽사상을 가진 여성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를 높이고 남성과 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요구했다. 또한 조혼, 열악한 고부관계, 전족의 악습 등 봉건적 후진사상을 비판했던 글들은 많은 여성들의 사상 개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본다.

## 3. 한계 및 제언

여성 기자로서 이각경과 강동위의 활동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이 작성한 기사 또한 많지 않았다. 특히 강동위의 경우, 물론 그 양은 방대하지만 건수로는 2건에 불과하여 분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이각경이 작성한 기사는 옛날 한국어와 한자로 작성되어 있어 이를 현대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처럼 분석대상 자료의 현대화 과정에서 의미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내용분석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내용분석은 분석대상

텍스트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기사의 절대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양적분석이 어려웠다. 이에 불가피하게 질적연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핵심 문장을 추출하는 데에 연구자의 의견과 생각이 담길 수 있다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연구에서 여성 기자들의 여성관 변천사 연구를 시도해 볼 만하다. 이각경와 강동위는 최초의 여성 기자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두 사람의 계몽적 사상과 함께 구축된 여성관은 오늘날 여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미래의 여성사상 형성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최초의 여성 기자의 출현 이후 현대의 여성 기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여성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이외에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로 분석대상을 확대하여 각국의 최초 여성기자들의 언론활동, 나아가 여성관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덧붙여 동양과 서양의 최초 여성기자들의 언론활동과 여성관을 비교해 본다면 최초 여성 기자들의 활동을 보다 풍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서양과 동양의 사회문화적 특성, 여성기자들의 활동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남(2008). 『신여성』 잡지를 통해 본 1920년대 여성관의 변화와 여자 교육. <우리말글>.
- 김경남(2022). 1910년대 『매일신보』의 여성 담론과 식민지 여성 만들기. <젠더와 사회>.
- 김수진(2009). <신여성, 근대의 과잉: 식민지 조선의신여성 담론과 젠더정치, 1920-1934>. 서울: 소명출판.
- 김양선(2020). 한국 근대 여성문학의 탄생과 형성: 근대 초기~식민지기. <개념과소통>.
- 김은주(2014). 한국의 여기자: 1920-1980.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은주(2021).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시대의 여명을 연 여성기자들.<한국여성기다협회>.
- 김동대(2022). 조선 성리학(性理學)과 동학(東學)의 출현(出現). <동학학보>.
- 대한언론인회(편)(1992). <한국어론인물사회>. 서울: 대한언론인회. <매일신보>(영인본).
- 리용필(1993). 조선 신문100년사. 파주: 나남.
- 서울신문100년사 편찬위원회(2004). <서울신문100년사>. 서울: 서울신문사.
- 수요역사연구회(편)(2002). <식민지조선과 매일신보>. 서울: 신서원.
- 이희정(2011). 1920년대 식민지 동화정책과 <매일신보> 문학연구: 전반기 연재소설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어문학>.
- 정진석(2002). 言論史學者 鄭晉錫 교수가 추적한 한국 최초 여기자 李珪璟의 생애 「번민 끝에 飲毒… 남편 사랑하는 기생이 죽은 후」.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212100078>
- 정진석(2004). 『고쳐 쓴 언론유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현백(2006). 한국의 여성운동 60년: 분단과 근대성 사이에서. <여성과 역사>.
- 장세화(1991). <한국여성교육이념의 이기철학에 관한 연구> . 성지출판사
- 조경원(1995). 조선시대 여성교육의 분석. <여성학논집>.
- 최옥자(1978). 한국여성 운동사. <기독교사상>.

- 최이숙(2015). 1960-70년대 한국신문의 상업화와 여성가정란의 젠더 정치. <한국언론학보>.
- 한국여성기자협회(2021). 한국의 여성 기자 100년. 파주: 나남.
- 陈文联(2006). 论20世纪初先进女性的自力观. 《深圳大学学报》.
- 邓耀荣(2013). 中国第一位女报人康同薇.《中国记者》.
- 杜学元(2004). 社会女性观与中国女子高等教育(先秦至晚清). 《华中科技大学》.
- 黄希庭(2002). 人格心理学. 《浙江教育出版社》
- 谷忠玉(2008). 中国近代女性观与女子学校教育的互动影响及现代启示. 《河北师范大学学报(教育科学版)》.
- 戈公振(1927). 《中国报学史》.
- 金冠军(2007). 传播学通论. 《上海交通大学出版社》
- 金香花(2007). 中韩女性教育比较研究. 《东北师范大学》
- 康有为(1998). 《请禁妇女缠足》.
- 康有为(1901). 《大同书》.
- 李诗毅(2021). 在近代社会变革中“成为新女性”. 《华东师范大学》.
- 刘煜程(2015). 清末女报人与中国女性的人格转型研究. 《湘潭大学》.
- 刘 方(2012). 女性观研究. 《妇女杂志》
- 倪愫襄(2015). 论近代中国启蒙伦理文化中的女性观. 《武汉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
- 邱远猷(2006). 黄遵宪的女性观及“男女同权论”. 《中华女子学院学报》.
- 施延吉·胡晓林(2017). 论清末女性形象的媒介建构及历史意义. 《传播与版权》.
- 胡绳(1998). 从鸦片战争到五四运动. 《人民出版社》.
- 宋素红(2002). 谁是中国第一个女新闻工作者?是裘毓芳, 还是康同薇?. 《新闻爱好者》.
- 宋素红(2006). 女性媒介: 历史与传统. 北京: 中国传媒大学出版社.
- 徐飞鹏(2022). 清末民初中国近代第一批女报人研究. 《科技传播》.
- 徐矜婧·高妍(2017). 康同薇、康同璧女权思想之异同. 《戏剧之家》.
- 卿丽萍(2013). 初成“新女性”(1900-1915). 《首都师范大学》
- 王天根(2010). 清末民初报刊与革命舆论的媒介构建. 《合肥工业大学出版社》
- 余丽芬(1995). 康同薇女子教育思想述评.《浙江社会科学》.
- 翟大昌(1932). 女子解放与提高女子教育. 《夜光》.

中华全国妇女联合会妇女运动历史研究室 (1991). 中国妇女运动历史资料 1840—1918  
[ M ]. 北京: 中国妇女出版社.

Cater, C., Steiner, L., Fleming, C.(2004). *Women and journalism*. London,  
UK: Routledge.

Abstract

**A Study on the View of Women by the First Female  
Journalists  
in Korea and China:  
Centering on Lee Gak-kyung and Kang Tongwei**

The first female journalists arrived in China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in Korea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first female reporter in Korea, Lee Gak-kyung, began her career at "Korean daily news(매일신보)" in 1921 and produced more than 40 reports. Lee Gak-kyung presented a modern and enlightened perspective on women that was focused on the family and society, including living practices, women's educatio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ducation. Kang Tongwei, the first female reporter in China, co-founded the "Nv Xue Bao(女学报)" with other prominent women intellectuals of the era and worked as a writer and translator for the "Zhi Xin Bao(知新报)" in Japanese. "On China's Low Morale" and "On the Pros and Cons of Female Students" are two studies she published. Through this study, Kang Tongwei critiqued the then-current conventional feudal system in China, presented examples from elsewhere, and emphasized the benefits of education for women. The innovative idea of "letting girls' schools spread widely across the country" was particularly put forth.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various perspectives on women expressed in media activities by two female journalists from China and Korea. For their opinions on female roles, female education, gender equality, and social culture, Lee Gak-kyung and Kang Tongwei—the first female journalists in Korea and China—are compared and contrasted. What makes the difference, and what circumstances led to its formation?

First, Lee Gak-kyung splits the female role view into two categories—the family role view and the societal role view—in order to address the first study issue. She suggested that the understanding of side occupations be improv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mily, condemned the Korean wife's attitude toward maids, and indicated how it should be modified. Lee Gak-kyung described the development of ideas and attitude toward social etiquette in the context of social positions. According to Lee Gak-kyung, it is crucial to confirm that women's family education was primarily focused on children's and family education. In addition, Lee Gak-kyung supports the idea of gender equality by arguing that women should enjoy the same social position and value as males, particularly within the household, where it is important to instill the idea that husbands should respect their wives. Finally,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 highlights the need for development by highlighting harmful practices including religion, early marriage, and conventions around marriage.

The primary focus of Kang Tongwei's conception of the female role is on mothers' guidance of their children in the family role of education, followed by a focus on women's roles as educators in the societal role. In addition, Kang Tongwei's perspective on women's education also provided situations from outside, highlighting how important women's education may be for the advancement of society. It underlines that men and women should acquire the same education as in other foreign nations in terms of gender equality. Finally, it highlights how important intellectuals are to the nation and society from a sociocultural perspective.

Together, Lee Gak-kyung and Kang Tongwei presented an enlightened perspective on women in media-related activities. The two female journalists underlined the necessity to turn women's feudal notions into new concepts and thought that acquiring education was the quickest and most direct approach to accept new ideas. Particularly, two female journalists advocated that education is a key role in promoting national

development by frequently bringing up the educ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media activities. However, the media appearances of the two also revealed disparities in viewpoints. Lee Gak-kyung and Kang Tongwei respectively promoted the idea of women who give attention to family and individuals and the perspectives of women who pay attention to society and the country.

This study determines what kind of women's viewpoints the early female journalists in Korea and China stressed in the feudal and backward social milieu of the period by examining the media activities of these journalists, and it also looks at the context of these women's enlightened viewpoints. Finding studies comparing the opinions of the first female journalists in Korea and China has proven to be challenging, but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will help the field of research on women's perspectives grow in the future.

Keywords: The first female reporter in Korea and China, Lee Gak-kyung, Kang Tongwei, views on women, views on women's roles, views on women's education, views on male equality, social and cultural vi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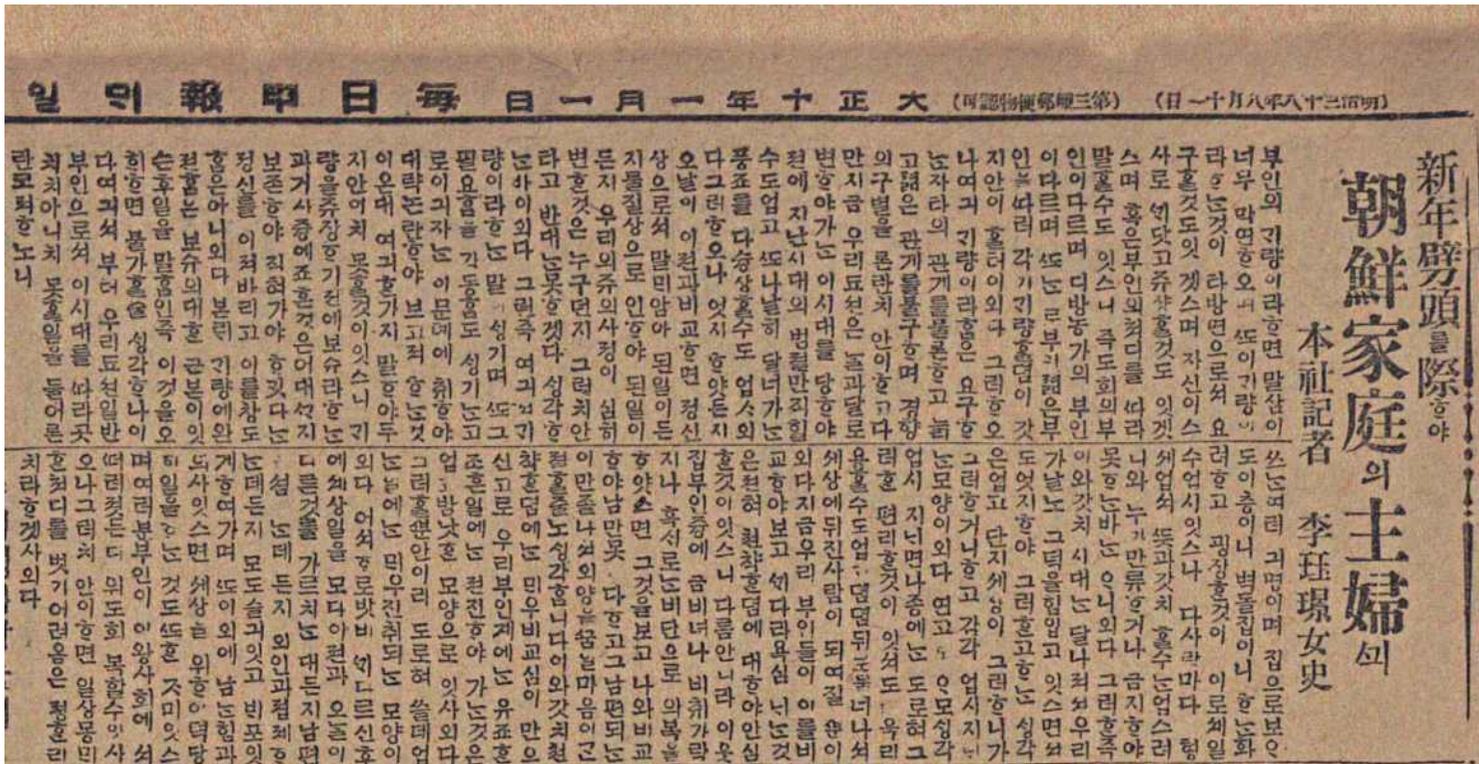


그림 3. <매일신보>, 1921. 1. 11.



그림 4. <매일신보>, 1921. 1. 14.



그림 5. <매일신보>, 1921. 1. 17.



그림 6. <매일신보>, 1921. 1. 20.



그림 7. <매일신보>, 1921. 1. 23.



그림 8. <매일신보>, 1921. 1. 29.



그림 9. <매일신보>, 1921. 1. 31.



그림 10. <매일신보>, 1921. 2. 4.



그림 11. <매일신보>, 1921. 2. 5.



그림 12. <매일신보>, 1921. 2. 8.



그림 13. <매일신보>, 1921. 2. 15.



그림 14. <매일신보>, 1921. 2. 17.



그림 15. <매일신보>, 1921. 2. 18.



그림 16. <매일신보>, 1921. 2. 20.



그림 17. <매일신보>, 1921. 2. 26.



그림 18. <매일신보>, 1921. 2. 28.



그림 19. <매일신보>, 1921. 3. 4.



그림 20. <매일신보>, 1921. 3. 7.



그림 21. <매일신보>, 1921. 3. 14.



그림 22. <매일신보>, 1921. 3. 26.



그림 23. <매일신보>, 1921. 4. 25.

雄敵未敢片言侵犯豈非能自振則弱小不可輕哉土耳其波斯印度中國古稱文明之邦也土耳其屏藩內叛國權外失六大國欲分之久矣印度已隸于英矣波斯陰屬于俄矣中國且有瓜分之說矣豈非不能自振則廣大不足恃哉夫美以士立日以士強豈非士之可貴哉中國頹弱廢病不振者久矣甲午之役以堂堂四千餘萬方里之國挫于區區三島之眾失東藩割臺灣償巨金開商埠盟城下立自縛之約失百世之威傾吾民之膏液戕吾民之財命使天下之民播口咋舌震驚悚駭者何賦夫日本戊辰以前危困之狀與今日中國等耳自天智至孝明千餘載外戚擅權王綱解紐奉承鴻緒者盡皆籐原氏之甥叙位朝廷者無非籐原氏之族宗室削弱兆庶無告賄賂徧于朝廷田園布於天下而諸國吏治廢弛叛亡蜂起令宰逃職豪武牧民原平二氏起自武功奪籐原廢故跡專橫之行日進不衰威福之狀有加無已德川家康豐臣氏之雄藩也以權詐陰險之行坐持政柄二百有餘年矣自昔籐原柄政相家執權保平亂國武門專肆大政移于關白全權歸于幕府將軍以世君如督旆自公卿迄頭隸各分采邑以贍家族臣將軍之臣民將軍之民積弱相安不知有君此我中國從古所無即魏晉盜竊亦未嘗如此之久而甚也當此之時內則抑壓其民苛賦重歛公七民三富商豪農別有編派間或羅罪律無定式畸輕畸重唯刑吏之息含冤茹苦

論中國之衰由於十氣不振

重矣哉士之於國也強弱係焉興廢係焉教化係焉風俗係焉不知先王之道不窮天人之化不明政治之故不達諸教之理不審各國之勢不究物理之微不諳古今之變者非士也觀奸兇亂國土室凌遲兆庶塗炭四鄰交逼上下窮困盜賊迭起社稷將亡而不疾首痛心握腕痛哭思振之者非士也觀聖教式微禮樂廢壞外教紛布內民託庇人之視我爲野蠻以我爲無教而不深引愧恥痛自激勵思拯之者尤非士也若夫士則仰觀造化俯察宗教綜覽今古橫濟中外以聖人之學治天生之民故國家隆替視士氣之昌微奸佞乘權因士氣之衰靡蓋士之是非衆所繩準也豈不重哉夫歷往古觀來今興廢之蹟得失之端未有不由士者詩曰濟濟多士文王以寧此文王以多士而興者也逮乎始皇暴虐畏士清議乃禁詩書坑儒士禁偶語愚黔首而人士之口卒不可塞民庶之怨因日以殷不終二世而亡其天下東漢桓靈以庸弱之姿信讒邪之寺鈔銅賢人害殺良士漢社遂虛宋之元祐慶元明之東林復社士氣抑塞國運朽敗此古用士不用士之效也夫才者國之基也士者才之宅也士盛則其國強士窮則其國殃近徵外國莫不皆然美英德日今號強盛之國也然英日三島之地也德三十餘小國之一也比利時萬餘方里之小也屹然興屹然盛左強鄰右

그림 22. <지신보>, 1897. 9. 1, 32호

百餘兆人民之中國，威振海外，名振英法，推原所自，豈非士氣之振致之哉。夫日本之士，得中國學術之緒餘而若此，我中國之士，受數千年之聖教師傳，未失而若彼，豈不異哉。嘗獨居深念，竊思其故，豈船不堅，礮不利，無以助強歟。土地僻小，不足自立，物產薄劣，不足自供，無以致富歟。草昧不闢，無教之國，無以稱文明歟。則皆非也。士氣之不振也，苟安幸免，心私志散，以釀成此不痛不癢世界耳。推吾中國之士之意，豈不曰：勢之強弱，國運也，事之成敗，朝臣也，素位而行，吾何預於國。國寧賴於吾哉。夫歷三王，孕五帝，聰秀開敏，翹然而首於齊民者，士也。孔子一布衣耳，車馬棲棲，斯人是與。伊尹一耕夫耳，先覺自任，溝中已溺，彼二聖者，夫非猶是區區之士邪。昔邳惲投竿，范滂攬轡，東撤上書，東林攘臂，請朝太上，則帝車可牽，廷議大禮，則宮門可挽。匹夫抗憤，矯直斯行，亦甯非中國之士邪。雖然，中國士氣之不振，抑有故焉。漢初道雜，黃老亂真，發黜之始，痼毒既劇，逮及晉世，崇尚釋道，清談之誤，因以亡國。有唐繼起，士節掃地，奔走權門，恬不爲怪。宋儒獨善，自謀既優，流風所暢，爲害亦烈。自明迄今，士習之弊，亦有數端。貞逸自高者，則絕世離羣，山林深密也。風流自命者，則沈酣詩酒，馳逐聲歌也。迂闊遠事者，則委於國運，安於朝廷也。考據之家，則禽魚草木，嗜之愈甘。賈馬社部，旋其筋下，尤其下者，皆首詞章，終老帖括，舉凡民生之疾苦，鄰國之同病，重疾之存亡，

無可訪之門，越分上請，拔輦泣請，奏牘未上，刀鋸已加，瞻仰君門，如天如神，積威力却壓制已極。此又中國之所無也。外則德美俄法奧荷見逼，鯨吞虎視，肆其雄畧之威，弱肉強食，任彼膏腴之取，幕府則胆如鼷小，識似鴛卑，畏難苟安，唯命是聽，索償鉅金，無勿予也。要關口岸，無勿從也。立約弗敢過問也。曲直弗敢與判也。敬其敵，虐其赤，取容一時，偷安瞬息，不知傾覆之近在旦夕。此中國之同病，可爲痛息者也。德川晚好儒，建孔子廟，講程朱學，由是士知君臣之義，民有勤王之心。儒生源光國著書，首倡尊王之義。藩主齊昭立說，主持攘禁之議，激動人心，感發士氣。度邊華等譯西書，新井君美傳雅爾學，山縣昌貞高山正之蒲生秀實等，或著書寓意，或泣哭動人，或演說勸化，或面折權貴，或刺主和之臣，或襲外國之使其生徒故吏，星繁雲衆，發激甚多，傾動天下。故處士憤議沸盈，如風雷之相應，乃至潛交公卿，密連大藩，以抗幕府。于是公卿藩侯，多主攘禁之說，然尊攘之士，被官者十七人，幕府方且厲其威棧，大索嚴錮，而人心益橫，士氣益張，伏蕭斧，竊密網，至不可勝數。前者駢戮，後者輩起，一往不顧，視死如歸，用能使公卿悚變，幕府危懼。革八十國封建之積弊，收千餘年已墜之神柄，使神武墜緒，亡而復存，明治維新，肇有端緒，皆諸士之功也。于是日本維新政治，更正條約，頒定憲法，以張國法，開國會，以伸民氣，變政僅二十餘年，而挫削四千餘萬方里四

用李季，天下士其同此衷否耶。

新學偽經考敘

新會梁啟超撰

南海先生演孔之書四，而偽經考先出世焉。問者曰：以先生之大道，而猶然與近世考據家爭一日之短長，非所敢聞也。梁啟超曰：不然，孔子之道，堙昧久矣，孔子神聖與天地參，制作爲百王法，小大精粗，其運無乎不在。自荀卿受仲弓南面之學，舍大同而言小康，舍微言而言大義，傳之李斯，行教於秦，於是孔子之教一變。秦以後之學者，視孔子如君王矣。劉歆媚莽，賈爲古文，摭遺亂之野文，讎口說之精義，指春秋爲記事之史，目大易爲卜筮之書，於是孔子之教又一變。東漢以後之學者，視孔子如史官矣。唐宋以降，鑿茲破碎，束閣六經，專宗論語，言理則勦取佛老以爲說，言學則束身自好以爲能，經世之志忽焉，大道之失益遠。於是孔子之教又一變。宋以後之學者，視孔子如迂儒矣。故小有智慧之上，以爲孔子之義甚淺，其道甚隘。坐此異教來侵，輒見竊奪，魏唐佞佛，可爲前車。今景教流行，挾以國力，其事益悍，其幾益危。先生以爲孔教之不立，由於孔學之不明，鋤去非種，嘉穀必茂，蕩滌雰霧，天日乃見。故首爲是書，以清蕪穢。至於荀學之偏，宋學之淺，但明於大道，則支流餘裔，皆入範圍。非吾黨之寇讎，固無取於好辯。啟超聞春秋三世之義，據亂世，內其國而外諸夏，升平世，內

宗教之興替，不齊楚，可得失，不相關。嗚呼！以此言士士氣可知。以此求士士才可數。以此厲士士節可想矣。此中國所以變法數十年而不強也。更有無賴學子，於中國之學，憮然未嘗問津，於是弄其語，西其服，壓人以氣，大於夜郎，而英法之文，率未上口。格致之學，猶未窺徑，獵其皮毛，失其竅要。其爲士者又何如矣。此中國所以變法數十年而益弱也。即有一二志士，熱血球世，合大羣，倡實學，修聖道，攘除恥辱，整理天下，乃大心未就，而謠諑旋加，銳氣而前，無聊而返，豈不痛哉。觀鄰火而閉門隱避者，災必自及。觀里貧而厚藏自備者，盜必橫侵。獨不見印度乎。隸英六十餘年，而議院不有印人之跡也。非我族類，其心必異。種類之辨，西人最嚴。彼誠奚愛于吾哉。若夫安其故常，絕無振作，好虛談，遠實學，戕農工，惡商賈，善藏畏事，圖自私自利之計，就縛制藝，無利民便國之事，甘心爲印人之續，俯首就奴隸之賤，殷鑒不遠，竊爲天下賢士傷之。夫天下事，顧亦人爲之耳。公車上書，激動全國，強學立會，開發天下，士氣一振，羣然景從，已然之效也。春秋之義，責備賢者，反不討賊，趙盾等于弑君，鄰國不救，齊桓引爲大恥。以此律之，則中國弱危之弊，不能無咎于士君子也。若夫斗筭之量，無識之人，斯固無與于責焉矣。夫合天下之士氣，乃心主事，日美之所以興隆也。士與國離，自私自利，波斯土耳其印度之所以衰頹也。甯孰樂焉。吾也漆室抱憂，投梭而起，杞人之念，益

維敵未敢片言侵犯豈非能自振則弱小不可輕哉土耳其波斯印度中國古稱文明之部也土耳其屏藩內叛國權外失六大國欲分之久矣印度已隸于英矣波斯陰屬于俄矣中國且有瓜分之說矣豈非不能自振則廣大不足恃哉夫美以士立日以士強豈非士之可貴哉中國頹弱廢病不振者久矣甲午之役以堂堂四千餘萬方里之國挫于區區三島之衆失東藩刺臺灣償巨金開商埠盟城下立自縛之約失百世之威傾吾民之膏液戕吾民之財命使天下之民播口咋舌震驚悚駭者何歟夫日本戊辰以前危困之狀與今日中國等耳自天智至孝明千餘載外戚擅權王綱解紐奉承鴻緒者盡皆籐原氏之甥叙位朝廷者無非籐原氏之族宗室削弱兆庶無告賄賂偏于朝廷田園布於天下而諸國吏治廢弛叛亡蜂起令宰逃職豪武牧民原平二氏起自武功奪藤原履故跡專橫之行日進不衰威福之狀有加無已德川家康豐臣氏之雄藩也以權詐陰險之行坐持政柄二百有餘年矣自昔籐原柄政相家執權保平亂國武門專肆大政移于關白全權歸于幕府將軍以世君如督旆自公卿迄賈隸各分采邑以瞻家族臣將軍之臣民積弱相安不知有君此我中國從古所無即魏晉盜竊亦未嘗如此之久而甚也當此之時內則抑壓其民苛賦重斂公七民三富商家農別有編派間或羅罪律無定式騎驍騎重唯刑吏之怠含冤茹苦

論中國之衰由於十氣不振

南海康同荷撰

重矣哉士之於國也強弱係焉興廢係焉教化係焉風俗係焉不知先王之道不窮天人之化不明政治之故不達諸教之理不審各國之勢不究物理之微不諳古今之變者非士也觀奸兇亂國王室凌遲兆庶塗炭四鄰交通上下窮困盜賊迭起社稷將亡而不疾首痛心握腕痛哭思振之者非士也觀聖教式微禮樂廢壞外教紛布內民託庇人之視我爲野番以我爲無教而不深引愧恥痛自激勵思拯之者非士也若夫士則仰觀造化俯察宗教綜覽今古橫齊中外以聖人之學治人生之民故國家隆替視士氣之昌微奸佞乘權因士氣之衰靡蓋士之是非衆所繩準也豈不重哉夫歷往古觀來今興廢之蹟得失之端未有不由士者詩曰濟濟多士文王以寧此文王以多士而興者也逮乎始皇暴虐畏士清議乃禁詩書坑儒士禁偶語愚黔首而人士之口卒不可塞民庶之怨因日以殷不終二世而亡其天下東漢桓靈以庸弱之姿信讒邪之寺鈔綱賢人害殺良士漢社遂虛宋之元祐慶元明之東林復社士氣抑塞國運朽敗此古用士不用士之效也夫才者國之基也士者才之宅也士盛則其國強士衰則其國殃近徵外國莫不皆然美英德日今號強盛之國也然英日三島之地也德三十餘小國之一也比利時萬餘方里之小也屹然興屹然盛左強鄰右

그림 23. <지신보>, 1898. 3. 21, 52호

百餘兆人民之中國，威振海外，名振英法，推原所自，豈非士氣之振致之哉。夫日本之士，得中國學術之緒餘而若此，我中國之士，受數千年之聖教，師傳未失，而若彼，豈不異哉。嘗獨居深念，窮思其故，豈船不堅，燬不利，無以助強歟。土地僻小，不足自立，物產薄劣，不足自供，無以致富歟。草昧不闢，無教之國，無以稱文明歟。則皆非也。士氣之不振也，苟安幸免，心私志散，以釀成此不痛不癢世界耳。推吾中國之士之意，豈不曰：勢之強弱，國運也，事之成敗，朝臣也，素位而行，吾何預於國。國寧賴於吾哉。夫歷三王，孕五帝，聰秀開敏，翹然而首於齊民者，士也。孔子一布衣耳，車馬棲棲，斯人是與。伊尹一耕夫耳，先覺自任，溝中已溺，彼二聖者，夫非猶是區區之士邪。昔邳揮投竿，范滂攬轡，東撤上書，東林攘臂，請朝太上，則帝車可牽，廷議大禮，則宮門可挽。匹夫抗憤，燒直斯行，亦甯非中國之士邪。雖然，中國士氣之不振，抑有故焉。漢初道雜，黃老亂真，發黠之始，痼毒既劇，逮及晉世，崇尚釋道，清談之誤，因以亡國。有唐繼起，士節掃地，奔走權門，恬不爲怪，宋儒獨善，自謀既優，流風所暢，爲害亦烈。自明迄今，士習之弊，亦有數端。貞逸自高者，則絕世離羣，山林深密也。風流自命者，則沈酣詩酒，馳逐聲歌也。迂闊遠事者，則委於國運，安於朝廷也。考據之家，則禽魚草木，嗜之愈甘。實馬社那，旋其腸下，尤其下者，結首詞章，終老枯槁，舉凡民生之疾苦，鄰國之利病，種族之存亡，

無可訴之門，越分上請，扳軒泣訴，奏牘未上，刀鋸已加，瞻仰君門，如天如神，積威力劫壓制已極。此又中國之所無也。外則德美俄法奧荷見逼，鯨吞虎視，肆其雄畧之威，弱肉強食，任彼膏腴之取，幕府則胆如鼷小，識似貧卑，畏難苟安，唯命是聽，索償鉅金，無勿予也。要關口岸，無勿從也。立約弗敢過問也。曲直弗敢與判也。敬其敵，虐其赤，取容一時，偷安瞬息，不知傾覆之近在旦夕。此中國之同病，可爲痛息者也。德川晚好儒，建孔子廟，講程朱學，由是士知君臣之義，民有勤王之心，儒生源光國著書，首倡尊王之義，藩主齊昭立說，主持攘彝之議，激動人心，感發士氣，度邊華等譯西書，新井君美傳雅爾學，山縣昌貞高山正之蒲生秀實等，或著書寓意，或泣哭動人，或演說勸化，或面折權貴，或刺主和之臣，或襲外國之使，其生徒故吏，星繁雲衆，發激甚多，傾動天下，故處士橫議沸盈，如風雷之相應，乃至潛交公卿，密連大藩，以抗幕府，于是公卿藩侯，多主攘彝之說，然尊攘之士，讓官者十七人，幕府方且厲其威稜，大索嚴網，而人心益橫，士氣益張，伏蕭斧，觸密網，至不可勝數。前者駢戮，後者輩起，一往不顧，視死如歸，用能使公卿悚變，幕府危懼，華八十國封建之積勢，收千餘年已墜之神柄，使神武墜緒，亡而復存，明治維新，肇有端略，皆諸士之功也。于是日本維新政治，更正條約，頒定憲法，以張國法，開國會，以伸民氣，變政僅二十餘年，而挫割四千餘萬方里四

用李李天下士其同此衷否耶

新學僞經考敘

新會梁啟超撰

南海先生演孔之書四，而僞經考先出世焉。問者曰：以先生之大道，而猶然與近世考據家爭一日之短長，非所敢問也。梁啟超曰：不然，孔子之道，埋味久矣。孔子神聖與天地參，制作爲百王法，小大精粗，其連無乎不在。自荀卿受仲弓南面之學，舍大而言小，舍微而言大，言大義，傳之李斯，行教於秦，於是孔子之教一變。秦以後之學者，視孔子如君王矣。劉歆媚莽，質爲古文，撫演亂之野文，離口說之精義，指春秋爲記事之史，目大易爲卜筮之書，於是孔子之教又一變。東漢以後之學者，視孔子如史官矣。唐宋以降，鑿茲破碎，東閣六經，專宗論語，言理則勦取佛老以爲說，言學則束身自好以爲能，經世之志忽焉。大道之失益遠，於是孔子之教又一變。宋以後之學者，視孔子如迂儒矣。故小有智慧之士，以爲孔子之義甚淺，其道甚隘，坐此異教來侵，輒見窺奪，魏唐佞佛，可爲前車，今景教流行，挾以國力，其事益悍，其獲益危，先生以爲孔教之不立，由於孔學之不明，鋤去非種，嘉穀必茂，蕩滌劣習，天下乃見，故首爲是書，以清蕪穢。至於荀學之偏，宋學之淺，但明於大道，則支流餘裔，皆入範圍，非吾黨之寇讎，固無取於好辯。啟超聞春秋三世之義，據亂世，內其國而外諸夏，升平世，內

宗教之興替不齊，楚弓得矢，漸不相聞，嗚呼！以此言士氣可知。以此求士才可數。以此厲士，士節可想矣。此中國所以變法數十年而不強也。更有無賴學子，於中國之學，懵然未嘗問津，於是弄其語，西其服，壓人以氣，大於夜郎，而英法之文，率未上口，格致之學，猶未窺徑，獵其皮毛，失其竅要，其爲士者又何如矣。此中國所以變法數十年而益弱也。即有一二志士，熱血球世，合大羣，倡實學，修聖道，攘除恥辱，整理天下，乃大心未就，而謠諑旋加，銳氣而前，無聊而返，豈不痛哉。觀鄰火而閉門隱避者，災必自及。觀里貧而厚藏自備者，盜必橫侵。獨不見印度乎？隸英六十餘年，而議院不有印人之跡也。非我族類，其心必異，種類之辨，西人最嚴，彼誠奚愛于吾哉。若夫安其故常，絕無振作，好虛談，遠實學，淺農工，惡商賈，善藏畏事，圖自私，自利之計，就縛制藝，無利民便國之事，甘心爲印人之續，俯首就奴隸之賤，殷鑒不遠，竊爲天下賢士傷之。夫天下事，顧亦人爲之耳。公車上書，激動全國，強學立會，開發天下，士氣一振，羣然景從，已然之效也。春秋之義，責備賢者，反不討賊，趙盾等于弑君，鄰國不救，齊桓引爲大恥，以此律之，則中國弱危之弊，不能無咎于士君子也。若夫斗筭之量，無識之人，斯固無與于責焉矣。夫合天下之士氣，乃心王事，日美之所以興隆也。士與國離，自私自利，波斯土耳其印度之所以衰頹也。甯執樂焉，吾也漆室抱憂，投梭而起，杞人之念，益